

겨울가고

| 2006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운문집 |

봄 지나



01 서울특별시

- 너와내가 _11
- “임진강” _13
- 화합의 장구가락 _15
- 통일이되면 제일먼저 _18
- 불완전한 평화(비무장지대) _21
- 유산(遺産) _23
- “우리 착한 동무 되자요” _25
- 슬픈잔치 _28
- 할아버지의 땅 _29

02 부산광역시

- 바람개비와 할아버지 _33
- 만남의 슬픔 _35
- 마음속의 상자 _37
- 너희들은 좋겠다 _39
- 나의 바람아 _41
- 꽃이 진다고 _44
- 우리가 말해요 _45
- 저 비의 노래 _47
- 기다림의 끝에... _49

03 대구광역시

- 소망 담은 민들레 꽃씨 _53
- 토혈 _55
- 기억 속의 두 강물 _57
- 나와 북한친구가 그린 지도 _60
- 산은 안다 _62
- 회복 _64
- 금강산의 외출 _68
- 나는 통일입니다 _70
- 내일의 부활 _73

04 인천광역시

- 통일을 이루는 지우개 _77
- 할아버지의 노을 _80
- 유월(六月)의 시간에 서서 _82
- 호랑이의 울부짖음 _85
- 우리는 하나입니다 _88
- 나무 _90
- 철문너머 친구들 _93
- 할아버지의 청심환! _95
- 민들레에게 _97

05 광주광역시

- 손 잡고 함께 가자 _103
- 당신들은 무얼 하나요? _105
- 별이 모여 빛이 되고... _108
- 통일됐네, 통일됐어 _110
- 희망게임 _112
- 그것을 넘어
그곳으로 간다 _114
- 통일의 나라로 _117
- 만남의 설렘 _120
- 고목아래서 _123

06 대전광역시

- 대~한민국의 힘! _127
- 제2땅굴 전망대에서 _130
- 염원의 태양 _134
-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_136
- 통일의 보 _138
- 해동(解東) _141
- 통일은 _144
- 하늘에 띄우는 편지 _146
- 하나가 되는 그날 _148

07 울산광역시

- 통일기차를 타고 _153
- 허리띠를 맨 푸른 호랑이 _155
- 기억 _156
- 통일 수박 _158
- 할아버지와 손녀 _160
- 고향 _162
- 외할아버지의 노랫소리 _163
- 호랑이 허리가 잘렸다 _165
- 통일 전망대 _168

08 경기도

- 태극무늬 어울림 _173
- 형의 편지 _176
- 할머니 전상서 _180
-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_182
- 언젠간 보고픈 개성 땅
호랑나비 날아가겠지 _184
- 할아버지의 귀향길 _187
- 민들레 꽃씨 _189
- 하나의 끈 _191
- 6월의 비 _195

09 강원도

- 새들처럼 _199
- 겨울은 가고 봄을 지나 _201
- 그날이 오면 _203
-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_205
- 우리는 하나되어 _207
- 아우에게 _209
- 우리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_211
- 누이 _213
- 우리는 하나 _215

10 충청북도

- ‘통일, 그날이 오면’ _219
- 강으로 바다로 _221
- 평화의 외침 _223
- 남과 북을 뽕뽕 묶어주렴 _226
- 멀지 않은 만남 _227
- 우리는 이미 하나되어 _229
- 우리 할아버지 _232
- 두고 봐라! _233
- 통일 그리기 _235

11 충청남도

- 공주 산림 박물관의
우리나라 지도 _239
- 기도 _241
- 금강산 가는 길 _243
- 우리나라 지도 _245
- 정오의 금물결 _247
- 통일의 노래 _249
- 그날이 오면 _251
- 등나무과 칙나무 _253
- 바람처럼 _256

12 전라북도

- 친구야, 우리가 꼭 이루자 _261
- 봄을 부르다 _263
- 범(虎)의 전설 _266
- 소원 비행기 _268
- 새아침을 기다리며 _270
- 연리지(連理枝)를 꿈꾸며… _272
- 퍼즐처럼 _274
- 멀지 않은 그날을 그리며 _275
- 그리운 조국 강산 _277

13 전라남도

- 우리가 나중에 _283
- 통일로 가는 기차 _286
- 헤어짐의 길목에서 _289
- 할머니의 눈물 _291
- 민족의 염원 _292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_294
- 눈물 한 방울 _296
- 어찌하여 _298
- 선 긋기는 쉽다.
 그러나 지우기는 쉽지 않다 _301

14 경상북도

- 유월의 하늘 _307
- 겨울 바다 _310
- 조개껍데기 _312
- 희망의 시계 _314
- 멀어진 북으로 _317
- 내 소원은 _319
-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 _321
- 온 겨레의 소원 _323
- 마주보며 웃는 날 _326

15 경상남도

- 백두산 할아버지
 한라산 할머니 _331
- 한민족의 눈물 _333
- 옥수수 밭 _335
- 얼마나 좋을까? _338
- 여러분은 아시나요? _339
- 탈북자 _342
- 날개 _345
- 한 민족, 한민족 _347
- 탈북자 _349

16 제주도

- 통일 새 _353
- 배달의 나무 _356
- 겨울 것 없는 하늘을
 기다리며 _358
- 무궁화 이야기 _360
- 두 손 맞잡은 대한민국 _362
- 돌담 건너, 우리는 하나 _365
- 통일의 땀 _367
- 녀쿨장미 _369
- 짝을 찾아 주세요 _372

01

서울특별시*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너와내가 _11
- "입진강" _13
- 화합의 장구가락 _15
- 통일이되면 제일먼저 _18
- 불완전한 평화(비무장지대) _21
- 유산(遺産) _23
- "우리 착한 동무 되자요" _25
- 슬픈잔치 _28
- 할아버지의 땅 _29



최우수상

너와 내가

미래초6 • 이수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통일의 끈을 잡아보자

서로가 가보지 못했어도
너는 한라산 줄
나는 백두산 줄

네가 뛰면 한라산이 보인다
내가 뛰면 백두산이 보인다

너와 내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통일의 줄을 이어보자

서로가 만나지 못했어도
너는 한강 줄
나는 압록강 줄



네가 웃으면 한강을 만난다
내가 웃으면 압록강을 만난다

너와 내가 어깨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
통일의 문을 열어보자

서로가 들어가지 못했어도
너는 남대문
나는 평양성문

네가 밀면 남대문이 열린다
내가 밀면 평양성문이 열린다
얼굴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한 핏줄
우리는 한 민족
우리 함께 통일의 길로 힘껏 달려가 보자



최우수상

“임진강”

삼성중3·김문희

6월의 햇빛을 한껏
머금은 한강과 임진강이
뜨겁게 몸을 부빈다.

일백오십오 마일
육천 사백만 평의
철벽을 뚫고

질기고 억센 이념의
곡류를 지나
오두산 아래 벽찬
눈을 마주하고

너나없이 가슴이 저려
와락 부둥켜안는다.

오십 년 몸이 사무친
강줄기
깊게 패인 분단의
상처를 씻어라

오십여 년 이 가뭄에
북녘 고향 땅 그리는 이산의 노인
눈물 마른다.

밀물의 밀치고 어서 바다로
내 민족 한을
벗 삼아 가자.

결코 쉬운 일 아니려니
바람도 잠시 멈추어 섰다.





최우수상

화합의 장구가락


한서고2·박선경

목직한 능선
섬세한 물결 따라
민족의 윤곽담은
장구가락 흘러라

부서지다 모이고
드물다간 질계
지난 눈물 품어두고
저 멀리로 뻗어라

늪은 대지
사뿐히 쓸어가며
서러운 강물 따라
고이고이 고여서

비로소 너의 얼굴
힘차게 들어올려
두려운 저 선 위에
푸른 꽃을 피워라



독립을 외치며
거리에 박힌
수많은 열사들의
그 까만 핏자국과

길을 메운 태극기
그 힘찬 노래에
빈틈없이 자리했던
끈적끈적한 그것은 어디 있는가?

절절한 울림
홍겨운 가락 열어
그리운 그것 끌고
휘모리를 세워라

너의 가락은
마침내 하강하여
이 땅의 모든 정수리에
원을 그릴 것이니

그리하여 아아
무수한 빛깔들이
푸른 자태 빛어낼
그 순간 오거라

그리하여 아아
곳곳에 함성
한반도 가득 채울
그 순간 분명 오리라






우수상

통일이 되면 제일먼저

중마초4·변원준

남한과 북한
두 땅덩어리가
손을 잡는 날이 오면
얼 쭉 ~
나는 제일 먼저
철조망의 빨간 허리띠
잘라 버려야지

남한과 북한
두 땅덩어리가
얼싸 안는 날이 오면
얼 쭉 ~
나는 제일 먼저
나는 백두산 천지에
너는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
기쁨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야지



남한과 북한
두 땅덩어리가
이웃사촌 되는 날이 오면
얼 쭉 ~
나는 제일 먼저
북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게임 한판 해야지

남한과 북한
두 땅덩어리가
하나 되는 날이 오면
얼 쭉 ~
나는 제일 먼저
경의선 타고
개성으로 백두산으로
중국으로 세계로
쭉쭉 뻗어 가야지

지금도 코앞에서
잡힐 것만 같은
통일의 날을 기다리는
벽찬 내 가슴
오늘도 나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우수상

불완전한 평화 (비무장 지대)

중원중2·장희수

반세기 전
포탄이 춤을 추던 자취를
소중한 추억처럼 품은 채
이름 모를 잡초가 자라는 곳.


환경오염으로 보기 드문
고라니 떼, 살쾡이 떼를
천국의 목장처럼 키우는 곳.

비. 무. 장. 지. 대.

지뢰밭을 뒤덮어버린
초록은 아름답기만 하고
다리 잃은 동물에게도
떨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곳.

반. 쪽. 의. 평. 화.

이들은 외친다, 소리 없이...
녹슨 철조망이 막고 있는



불안한 휴전선이 아닌
화해의 새싹이 피워낸
초목으로 돌려 쌓인 한반도를.

이들은 소망한다, 간절히….
행여라도 지뢰를 밟을까
조심조심한 발걸음이 아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한반도를.

그리고 믿는다, 진심으로….
완전한 평화가
뿌리 내린 한반도를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우수상

유산(遺産)


잠실고2 • 최우석

나의 할아버지는
기다린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그 기다림 없이도
이 땅의 차디찬 세월은 흐르고
짜디짠 그 눈물 없이도
이 땅의 붉은 흙은 마르지 않았고

50년이 흐르고 오직 흐른 것은
압록강에 흘러보낸 이별도 아닌
한탄강에 흘러보낸 형제의 피도 아닌
그 이마에 흘러가는 강(江)이었습니다.

그 눈물 없이도 오직 마른 것은
세령계티 초원의 건기도 아닌
이른 봄 고비사막의 사구도 아닌
그 가슴에 말라버린 망(望)이었습니다.



기다린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움의 눈물도 없을 거라 하였지만,
그의 혈류가 민들레씨 바람 타며
심연 속 요동치는데,

한반도 어느 산, 어느 들엔들
차가운 유골이 가득하지 않겠느냐고
민들레 꽃씨 오롯이 뿌리내릴
따뜻하고 넉넉한 터 어디 있을 거냐고

그렇게 권태로운 봄을 맞고 또 맞고
그날, 그곳의 민들레 내음
바람결에 물어내다.

그렇게 당신도 바람결에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올봄에도, 내년에도 씨를 흩뿌리렵니다.



“우리 착한 동무 되자요”

삼성초5·이원영


웬지 모르겠어요.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잡고 있는 손이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하더니
헤어질 때
손을 꼬~옥 잡는 걸 보니
나랑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친한 동무 되자요.” 라고
그 친구 말투로 말을 꺼냈더니

“고저, 자알 지내자요.” 하고
그 친구 콧웃었어요.

즐거워하는 얼굴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한참을 눈 맞추며
들어다보았어요.



다를 거라 생각했던
친구 얼굴이
볼수록 나랑 똑같아
놀라다가 또 기뻐하다가
잠이 깬어요.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어요.
우리는 다르지도
하나도 힘들지도 않았는데
오랫동안 손잡고 싶었는데

친구가 자랑하던
못치기 솜씨도 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우리 빨리 또 만나자요.” 라고
혼자 소리 내어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고져, 날래 다시 만나 착한 동무 되자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기다렸다는 듯
친구의 대답 소리가 들려 왔어요.





장려상

슬픈잔치

불암중3·양 희 경

집안이 고소하다.
갈비, 파전, 잡채의
고소한 냄새가 나를
즐겁게 한다.

몇 주 전 할머니가
손수 담그신
김치도 맛깔스럽다.

맛있는 음식 한 상
가득인데
할머니는 한 마디
말이 없으시다.

엄마도 아빠도
웃음이 없다.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북에 계신 큰아버지의
생신이구나...



장려상

할아버지의 땅

신경여실업고3·강 예 슬

할아버지의 땅은 항상 젖어있다.
젖은 안개 속,
떠오르다가 곧 가라앉는다.

그의 기억 속
아득한 땅의 흠냄새는
듣고 들어도 멀다.

잠시 다녀오마고
노란저고리 새색시와 이별하신
노래처럼 부르던 이야기는

옛 추억으로 남아
북이 보이는 강변
안개 속에 떠다니고,

그가 누운 곳
죽어서도 갈 수 없던
안개 속 젖은 땅

나는 보았다.
철조망 사이 강물을 거슬러
한 마리 연어처럼 부화하는 것을

그곳, 할아버지의 땅



02 부산광역시*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바람개비와 할아버지 _33
- 만남의 슬픔 _35
- 마음속의 상자 _37
- 너희들은 좋겠다 _39
- 나의 바람아 _41
- 꽃이 진다고 _44
- 우리가 말해요 _45
- 저 비의 노래 _47
- 기다림의 끝에... _49



최우수상

바람개비와 할아버지

명륜초4·장유진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50년이 넘도록 바람개비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는
냄비뚜껑도, 나뭇잎도
부채도 만지면 무엇이든 바람개비가 됩니다.

“딸그락 딸그락”
“바스락 바스락”
“윙 윙 윙 윙”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그리움을 담은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짜야” 바람이 불니다.
바람개비가 돕니다.
그리움을 담은 사랑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바람개비가 되어 오늘도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최우수상

안남의 슬픔

내성중3·이도윤

수 없이 꿈꾸던 태양을
수 없이 품었던 얼굴을

열어진 눈동자에 비추고
가슴으로 달려간 그곳

시린 가슴은 내달려도
맥없이 꺾어버린 무릎에는
더는 달려갈 힘도 없구나

붉게 충혈 된 나의 눈을
또다시 눈물로 가리고서

미치도록 부르짖은 엄마
울음소리에 묻혀버린 엄마

재만 남은 나의 영혼
끝내 놓지 못할 그 손

늘어난 주름살에 꽃히고
헤어질 두려움에 꽃히네

나는 자유에 전율하는 바람이어라.





최우수상

마음속의 상자

부산정보관광고3·김인혜

환한 빛 드는 넓디넓은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굳게 잠긴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리움' 이라는 작은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면
마음속이 환해서 어두운 곳을 보지 못하지만

슬프고 아플 땐 마음속이 캄캄해져
어찌나 그 속이 잘 보이던지….

그러다보면 점점 어두워지고
혼자 남겨진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움' 이란 나를 더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난 오늘 그 상자를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열어보았을 때
그냥 한 시절의 추억으로 넘길 수 있게...

조금씩 드리워지는 어둠을
빛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말입니다.





우수상

너희들은 좋겠다.

토성초5·김현욱

새들은 좋겠다.
하늘을 훨훨 날아
저기 먼 북한까지
갈수 있으니까.

태양은 좋겠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바람은 좋겠다.
북한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위로 전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싶다.

나는 구석구석 따뜻함을 전해주는
태양이 되고 싶다.

나는 시원한 바람이 되고 싶다.
3·8선 앞에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





우수상

나의 바람아

부산동여중3·안 유 정

하늘의 푸르름.
너처럼 날고 싶던 그땐
나도 마냥 행복했었지.


예쁜 꽃을 어루만져주던 너도
그런 너를 보며 행복해하던 나도

일 나간 아버지 기다리며
풀밭에서 소꿉장난하고
동산 위에서 노래하던
너의 모습도 그립구나.

별이 사는 하늘 밑에 누워
“네 별”, “내 별”을 세던 우리.

이젠 화약 냄새나는 전쟁은
털어버리고

사람들의 피비린내도
서로에 대한 미움과 함께




흘려보내고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서로 해맑게 웃던
그 시절로, 그 옛날로
돌아가자꾸나.
나의 바람아.

산 넘고 바다건너
향긋한 냄새를 한껏 품기며
지치고 아픈
우리 북의 친구에게
따뜻한 자유를 전해주자꾸나.


통일이라는 씨앗을
고이 싸서 주머니에 넣고
저기 북의 친구에게
통일의 씨앗을 전해주자꾸나.

끈끈한 우정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긴 실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실어 보내자꾸나.

그 긴 실을 손으로 감으면
잡힐지도 모르는 북한의 땅에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어 보내자꾸나.
나의 바람아.





우수상

꽃이 진다고

한독문화여고3 • 이은지

꽃이 진다고 내 그곳을 잊겠는가.
코끝에 남은 열은 향취 한 자락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점쳐본다.

있이 진다고 내 어찌 잊겠는가.
켜켜이 쌓이는 잊은 그리움일진데
예순 번째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구나.

눈이 녹는다고 내 가슴도 녹겠는가.
까맣게 언 가슴에는 된서리만 내리는데
제비야, 내 누이 날숨 한모금만 전해다오.

해가 간다고 내 핏줄을 잊겠는가.
반 토막의 심장이, 반 토막의 몸뚱아리가 아파
눈감지 못하는데

꽃이 진다고 내 어찌 그곳을 잊겠는가...



장려상

우리가 말해요

남성초5·곽지훈


손이 말해요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 친구들과 손잡고 놀자고

발이 말해요
북한 친구들과
축구하며 뛰어놀자고

입이 말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하자고

눈이 말해요
대동강도 함께 보고
낙동강도 함께 보자고

코가 말해요
백두산 맑은공기
함께 마시자고



마음이 말해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모두모두 말해요
어서 빨리 통일되어
만나자고





장려상

저 비의 노래


금정중3·최 환 세

대동강 수면 위를 두들기는
저 비의 슬픈 노래를
듣고 있는가.

한반도 땅덩어리에 깊이 스며드는
저 비의 슬픈 젖음을
느끼고 있는가.

지난날 수많은 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슴에는 핏물이
우리 손으로 일으켰던
그때의 폭풍을
기억하고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저 비의 소리 없는 울음을
이제는 알 수 있는가.



같은 하늘아래 같은 물방울들이 모여
같은 비를 맞는 우리는
한 민족 이견만

이제는 저 비의 슬픈 울음을
그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울지 말거라.
뜨겁게 타오를 태양이
우리 가슴속에 있으니...

이제 안심하여라.
찬란히 빛날 대한민국의 앞날이
우리 가슴속에 있으니...



기다림의 끝에...


한독문화여고2 • 송인혜

뜨거운 태양빛
그늘 속에 가려진 채
공허함만 맴도는 이곳

고요한 새벽안개 속의
잔잔한 여운처럼
이곳엔 슬픈 영혼의
한 맺힌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온다.

하늘이 구름을 끼고 살 듯
푸른 산이 나무를 끼고 살 듯
언제쯤이면...,
우리 함께 모여 한 민족 간의
정겨움을 느껴보라...

기다림의 끝에 닿은
푸른 안개 속 동산엔
언제쯤이면...,
우리 두 손잡고 뛰어 놀 수 있으리...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를 땐
잊지 못 할
자유의 함성을 외치리...,
영원의 함성을 외치리...

희망찬 날갯짓으로
자유의 바람을 따라
나는 저 새처럼
이 하늘을 날으고 싶다.


우리 모두 만날 그날의
기다림 끝엔
행복의 그날이 다가 올 런지...

기다림의 애절함 끝엔
우리 두 손잡을
그날이 다가 올 런지...



03 대구광역시*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 소망 담은 민들레 꽃씨 _53
 - 토혈 _55
 - 기억 속의 두 강물 _57
 - 나와 북한친구가 그린 지도 _60
 - 산은 안다 _62
 - 회복 _64
 - 금강산의 외출 _68
 - 나는 통일입니다 _70
 - 내일의 부활 _73



최우수상

소망 담은 민들레 꽃씨

침산초6·장인영


흑..., 흑...
무슨 소리지?

놀러 나온
민들레 꽃씨가
살포시 바람을 타며
이상한 소리를 쫓아간다

가로지른
슬픈 띠를 두르고 있는
남녘 바닷가

이마엔 쭈글쭈글
주름이 있는
할머니 울음소리

하늘로 훨훨
멀리 멀리
날아가는 새와



한 장의
조그만 사진을
번갈아 보시며
우시는 할머니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민들레 꽃씨는
끝없이 끝없이 날아간다

한 줄을 지나
북쪽으로 끝없이 끝없이





최우수상


토혈

덕화중3·김도형

서릿발 같은 바람이 물결 위를 지나
수면의 파문에 달은 우는데
저 서느린 흐느낌은, 삼경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다시 끊기어
붉은 피 터져나는 그 흐느낌.

네 암녹색 깃이 흐트러지도록
저 진회색 장막 너머로
제 몸을 태워 내는 눈물어린 빛을 향해
붉고 푸른 지지킴이던가. 흐느낌은...,
이어졌다 끊어졌다 다시 이어져
네 무슨 한이 그리도 깊기에
붉은 울음을 토해 내는가.
떨어진 눈물에 삭아버려
알 수 없는 슬픔을 가졌는가.

내일에는 네가 올까, 불을 밝히는
나뭇가지인 듯 앙상한 늙은 어미
늙고 곱은 손이 네 다리에, 달아 놓은



헤어지고 헤어진 누런 서신 조각
너는 그 서신의 주인 될 이를 찾아
핏빛, 붉은 울음을 토해 내느냐.

부드러운 어머니의 몸 위로 드리워진
메마른 회색 장막은 강산을 갈라
어머니의 몸에 찬 쇠기둥을 박는데
눈같이 새하얀 목덜미를 붉게 물들이고
목 긴 흐느낌조차 핏빛으로 물들인, 너는…,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을 들었으리라.

저 회색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무 아래 불여귀의 울음소리 들으며
늙은 어미 눈물 젖은 곱은 손이
아들의 손을 어루만질 때까지
네 붉은 울음은 끊이지 않을 테요.

메마른 회색 장막을 태워버리려는
푸른 눈물 감춘 이들의 손짓도
푸른 슬픔의 손짓도 끊이지 않으리라.



최우수상

기억 속의 두 강물


경북고2·차민근

반만년,
무궁한 역사 속에
들리는 6월의 총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산을 만들어 버렸구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도려낼 수 없는
시린 가시처럼
가슴 한구석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한이 올라와
차가운 강물에 부딪힌다

누가 이 같은 눈물의 원천을
강물에 뿌려 민족의 옷소매를
함뭍 적시고 말았는가

한반도 두개의 중심을
흐르는 두개의 강물



돌이킬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기나긴 한의 경계를 넘지 못해
만나지 못한 지 반백 년

이제 고통의 산이 무너지고
대동강과 한강의 얼어붙은
역사 속의 기억을 서서히 녹여 내리는
따뜻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리라

그 바람 머무는 곳
그 아픔의 서리
녹는 곳에서
다시금 두 강물 만나
연민의 고통
함께 나누리

회상 속의 두 강물은
분리된 길을

흐르고 있지만
새로이 쓰일
역사 속 첫 장에는
함께 가고 있음을
함께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깊이 새겨 쓰고 싶다





우수상

나와 북한친구가 그린 지도

숙천초6·방수정

밤하늘에
수놓은 별을 따다가
지도를 그립니다

대구, 서울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그렸습니다

밤하늘에
내가 그린 지도를
바라보던 북한친구가

개성, 함흥
해주, 청진
모두 자세히 그렸습니다

두 지도를 합해서
멋진 호랑이가 있는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 지도에는
휴전선도 없고 큰 벽도 없습니다
그저 나와 북한친구의
웃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나와 북한친구가
그렸던 지도…,
땅으로 내려오면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땅에서
뛰어노는 나와 북한친구….





우수상

산은 안다

아양중3·이진실

산은 안다

우단같이 보드라운 봄이 다시 와
저어, 저 북쪽 바람결에 길 잃은 씨앗 하나
숨털 같은 이끼 속에
여린 뿌리 가다듬고 고개를 쏘옥 내밀어도
산은 가시 울타리로 그들을 떼어 놓지 않으리
산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임을….

산은 안다

이끼같이 새 파아란 여름이 다시 와
내 친구처럼 어여쁜 제비꽃 하나
울퉁불퉁 못생긴 돌배나무 아래
여린 꽃잎 가다듬고 고개를 쏘옥 내밀어도
산은 가시 울타리로 그들을 떼어 놓지 않으리
산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임을….

산은 안다

분꽃같이 알록달록한 가을이 다시 와
떨어지는 낙엽 속 이름 모를 붉은 꽃을 위해

떨어지는 낙엽 속 간간하게 묻어나는
이름 모를 저 새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산은 가시 울타리로 그들을 떼어 놓지 않으리
산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임을...

산은 안다
구름같이 새하얀 겨울이 다시 와도
붉은 꽃은 반드시 필 것이라는 것을
붉은 해는 반드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산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임을...





우수상

회복

경북여고1 • 황수정

하늘을 닮았던
푸른 가지가
제 그늘에 쉬게 하면
녹슨 도끼에
황량이 배이고

세상이 혐오하던
빠알간 열매는
공중을 떠돌던
검은 새에게 빼앗겨버렸구나.

난초의 청아했던
기쁨의 노래는
아득한 기억 속에
깊이 잠기고

산마다 피어나던
하나의 불꽃들도
이제는 시들어지고 말았구나.




분명
이 산천 매만지던
바람의 손결
북녘 까만 밤 들뜬에 누운
까만 머리와 까만 눈동자 지닌
그 이의 불에도 가 닿겠건만

저기
이 강산을 노래하는
설악산 깊은 산새들
백두기슭 하얀 새벽 깨우시는
부모님 문안에도 뵈옵겠건만

우리의 내일은
더디게 흐르고
그리운 세월만 유수 같구나.

하지만 푸른 가지
베임을 당해도
쪼개지지 아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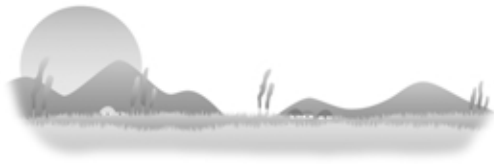
빠알간 열매는
흠침을 당하여도
먹히지 아니했다.

오히려 더 선명히
타올라 피어
더디게만 오던 하나 된 내일이
천고의 뒤에라도
이 앞에 오면

도끼는 썩어지고
검은 새는 떨어져
정처 없이 황야를 맴돌리라.

우리의 내일이
어제의 나무보다
더 푸른 하늘로
이 앞에 오면

하늘이 무너지지 아니하듯이
옛 선비의 사랑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려상

금강산의 외출

황금초6 · 류수미

금강산이 방긋 웃으며
외출 준비를 한다.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느긋느긋 갈아입는다.

위에는 빨간 T셔츠와
밑에는 푸른 바지
마지막으로 흰색 꽃무늬 양말까지 신고
집을 나선다.

“뽕~뽕”

바람버스 아저씨가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허겁지겁 버스로 올라탄
금강산은
바람버스 아저씨께
노오란 은행동전을 건네준다.

금강산이 탄 이 버스가
통일을 향해서...

금강산이 입은 이 옷이
태극기가 되기를...

우리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빌고 또 빈다.





장려상

나는 통일입니다


침산중3·이남 연

나는 씨앗입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땅을 파고
윗마을 사람들이 물을 주며
한가운데서 예쁜 꽃 피워낼
씨앗입니다.

나는 나무입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굽직한 뿌리 되고
윗마을 사람들이 높다란 기둥 되어
가장 튼실하고 큼직한 열매 맺을
나무입니다.

나는 햇살입니다.
철조망 사이사이로 환하게 내비쳐
어디든 상관없이 같은 빛을 주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게 할
햇살입니다.

나는 바람입니다.
한강을 지나 백두산을 휘휘 돌아 대동강까지



이곳저곳 누비며 소식을 전하고
모두의 마음에 불게 될
바람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 부르며
우리 손으로 철조망을 끊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민족의
희망입니다.

나는 내일입니다.
서로에게 밝은 모습만을 보이려
애써 삼키고 삼켰던 울음들이 모여
빛이 되고 바다를 이루어
그날을 위해 기도할
내일입니다.

함께
같은 땅을 밟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나는
'통일' 입니다





장려상

내일의 부활


경일여고2 • 박 보라미

왜 모르는가
그저 떠올리면 눈이 젖을 일이 아닌가
단지 한 세대를 거침으로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잊었는가

진돗개와 풍산개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이
서로 백색의 칼날을 겨누어야 했던
그 심장의 아픔을

세상에 안길 준비도 안 된
갓 태어난 핏덩이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야 했던
그 모정의 쓰림을

저기 죽어가는 사람은
내 동포임을 아는데도
파란 이방인의 폭격에 박수를 보내야 했던
그 모순의 쓰라림을



이제 과거로만 흘러보낼 것인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가슴에
풀리지 않을 한으로 남게 할 것인가
그때의 그 아픔을!

화합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무한한 가능성의 줄기에
따스한 빛으로 물이 오른다

내일
누런 잎은 푸른 잎으로
더 푸른 잎으로
찬란하게 빛나리라

04 인천광역시*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통일을 이루는 지우개 _77
- 할아버지의 노을 _80
- 유월(六月)의 시간에서서 _82
- 호랑이의 울부짖음 _85
- 우리는 하나입니다 _88
- 나무 _90
- 철문너머 친구들 _93
- 할아버지의 청심환! _95
- 민들레에게 _97



최우수상

통일을 이루는 지우개

인동초5·안상빈

지워버리자
우리지도
허리에
그어진 금


지우개로
짜악짜악
지워버리자

지우개를
만들려면

사랑이라는
항아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희망을 담고

우리 모두의
기도로



스르륵 스르륵
저어보자

완성된
지우개로
허리선
지우기 시작하면,

우렁차고 듬직한
호랑이가 된다.

하늘 높이
필력이는
우리 지도가 된다.

통일을 이루어보자.
휴전선이라는 금
하나 되어 지워보자.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 된
우리지도 그리자.





최우수상

할아버지의 노을

진산중3·배희원

이따금 할아버지는
북쪽의 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다

한 소끔을 꿇고 난 서울은
주홍빛 그리움으로
하늘을 채워

북녘 산을 넘는 저녁놀이
헤어진 누이의
따뜻했던 미소와 꼭 닮아
마지막 보았던 눈망울과 꼭 닮아

쟁여놓았던 그리움이
득 터지듯 터져
아련한 눈물이
태백산맥 굽이굽이 넘쳐
혹 그곳에 닿을까

서글픈 해가 지고
칠혹의 긴긴 밤이 지고 이내 먼동이 터오면
오라버니..., 하는 다정한 목소리에

그 영겁 같던 60년이
찰나처럼 느껴질
그날을 기다리며

이따금 할아버지는
북쪽의 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다





최우수상

유월(六月)의 시간에 서서


인명여고2 · 장다엽

나는 유월(六月)의 시간에 서서
흩어진 마음을 찾는
참으로 오래된 기억을
만난다

지금 갈라진 하늘의 경계에
굳어버린 날개와
푸르른
녹음을 아우르며 날던

어여쁜 날들
사라진 미소를
찾는다

먼 길을 더듬어 가듯이
이 작은 돌에 멈춘 시간은
남쪽의 노래도
북쪽의 장단도
하나의 음악을 기억하므로
여기 조각난 대지 위에



노래하지 않는 계절을
그린다

나는 유월(六月)의 시간에 서서
끝나지 않는
바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름다웠노라고
아름다웠노라고
하나였던 삶을 휘돌며
번지는 눈물을 담는다

벌어진 상처에 숨죽인
마음들
기억하는 날갯짓을 모아
굳어있던 오랜 은하물을
녹이고
새로운 물로써 상처를 씻길

이 멈추어버린 땅의 가슴에도

새 살 돋고
향기 푸른 꽃이여
오라





우수상

호랑이의 울부짖음

동막초6 • 하은현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고
'으르렁' 대며 포효하는
용맹스러운 호랑이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호랑이 허리를

38인치 밧줄로
꽂꽂 묶어버리자

이제는
두 팔을 번쩍 들고
으르렁대며 괴로워하는
불쌍한 호랑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엄마와 헤어진 아가처럼
누나를 잃어버린 동생처럼



그렇게, 호랑이는
으르렁대며 울부짖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제발 밧줄을 풀어달라며
애원하듯 으르렁대는 호랑이에게
이제 희망이 한 발짝씩 다가옵니다

반세기동안 감겨있던 곱은 매듭을
평양과 서울의 친구들이

통일 희망 담은 기차타고
풀려 합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으르렁대며 포효했던
반세기 전 그 용맹스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겠지요

다시 피가 통하고
자유로이 숨쉬는

호랑이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겠지요





우수상

우리는 하나입니다


육련중1 • 송영서

생각해봐요
그렇게 어려웠나요?
통일이란 말
그렇게 미워했나요?
우리 서로를
그렇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었나요?

다들
곧 될 거라고
통일이 될 거라고
말로만,

그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을 다가졌던 이들
이들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료하나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50년의 세월
50년의 아픔
차곡차곡 쌓여
찢어지고 헝클어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백두산 천지 물 한 모금이면
한라산의 물 한 방울이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젠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함께 했던 5000년을 돌아보세요.

같은 옷, 같은 말
같은 금수강산을 안았던 우리였는데
함께 했던 우리였는데

우린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하나니까요



우수상

나무

문일여고2 · 이청화


긴 어둠의 태양을 삼켰을 때
하나의 가지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듬었다
서로를 끌어안았다

숨결을 잃은 땅이 갈라질 때
하나의 가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생명수를 나눴다
서로의 희생에 감사했다

태양이 떠올랐을 때
헤어졌다 우리는
서로 다름의 꽃을 피우기 위해

단비에 목을 축일 때
헤어졌다 우리는
서로 다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헤어진 우리는
이기의 푸르름을 위해
이기의 무성함을 위해
상처를 남겼다 서로의 가지에

상처 난 나무는
잃어버렸다
녹음과 무성함을

꿈을 잃은 나무는
아파했다 가지들의 상처에
울었다 매일 밤을

가지들은 들었다
마음을 깨우는 나무의 울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나의 소리를

깨달았다 가지들은
우리는 한 뿌리였다는 것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옛날의 아름다운 꿈을





장려상

철문 너머 친구들

경인교대부설초4·한형경

똑. 똑. 똑
두드려 봅니다

굳게 닫힌 철문
혹시나 열릴까요?

우리는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였는데….

똑. 똑. 똑
두드려 봅니다

나와 똑같은 해맑은 미소의 얼굴들
혹시나 볼 수 있을까요?

들리지 않으세요?
수줍은 친구들의 나지막한 외침소리

이제는 우리 만나야 하는데
이제는 정말 만나야 하는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나와 같은 친구들, 철문 너머 친구들….





할아버지의 청심환!

인천신흥여중2·도건희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신
허리 굽은 할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상처는
도려낼 수 있지만
반백 년 깊은 상처
무엇으로 치유할까?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끓은 상처
이제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데...

바닷길도 열리고
땅 길도 열렸는데
반백 년 굳게 닫힌 마음의 문
어찌해야 열려질까?
이제는 기다릴 수 없는데
이제는 만나고 싶은데...

고통스런 할아버지 상처엔
세상의 좋은 명약 하나도 소용없다
'통일' 만이
우리 할아버지의 유일한 명약
용서와 사랑으로 만드는
우리 할아버지의 청심환!





장려상

민들레에게

강화고2·박기병


내가 있는 남녘은
봄이 한창이란다

생각만으로 아프고 목마른
아이야
북녘의 작은 민들레야

네가 뿌리박고 선 그 땅에는
봄이 왔느냐

웃음 짓는 구름에게
너의 순결한 흙씨를 건넬 만큼
따스한 바람을 품은 봄이
진정 왔느냐

혹여 너는 아직
차가운 대지 위에
여태껏 노오란 꽃망울에
햇빛마저 비추지 아니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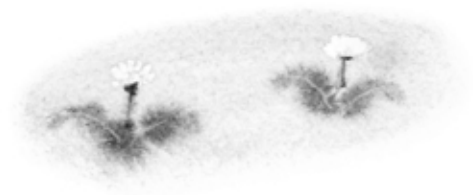
할 수 있다면
내 작은 온기라도
너에게 주겠건만

꿇긴 길이
마주 댄 총구가
겨울인 양 춥구나

나 바라기를
얼어붙은 땅덩이에
메마른 잎사귀에
봄비가
달디 달게 내리기를

그 후
햇빛이
명랑한 황금빛이
온 누리에 비춘다면

너의 희망 가득한 흙씨는
남녘 형제의 가슴까지 날아와
그 아찔한 노란빛을 설레게 틈을 것이다



05 광주광역시*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손잡고 함께 가자 _103
- 당신들은 무얼 하나요? _105
- 별이 모여 빛이 되고... _108
- 통일됐네, 통일됐어 _110
- 희망게임 _112
- 그것을 넘어 그곳으로 간다 _114
- 통일의 나라로 _117
- 만남의 설렘 _120
- 고목아래서 _123



최우수상

손잡고 함께 가자

금부초6·김유빈

금강산에 다녀왔네
철 따라 피는 꽃도
구비 도는 힘찬 물결도
찌를 듯한 봉우리도
한라산과 똑같았지

한라산에 올라갔네
이 산에 대한 절절함도
반쪽에 대한 그리움도
통일에 대한 열망도
금강산과 하나였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처음부터 하나이듯
핏줄이 뜨거운
너와 나도 하나인데

금강산에 함께 오르는 날
한라산을 같이 걸어가는 날

두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 되어서
허리 감은 철조망도
사라지겠지





최우수상

당신들은 무얼 하나요?

봉산중3·이 밝음

한민족, 하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들은 무얼 하나요?


귀로만 들려주는 통일을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통일은
우리들의 꿈을 잠재울 뿐이고,

맛으로 느껴볼 수 없는 통일은
우리들의 행복을 몰아낼 뿐이고,

피부로 만져볼 수 없는 통일은
우리들의 영혼을 울려 주지 않아요.

한민족, 하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들은 무얼 하나요?



한 번의 악수가
한 번의 포옹이
한 번의 손길이
한 사람의 가슴이

우리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우리들의 행복에 희망을 더해주고
우리들의 영혼에 한 줄기 햇살을
비취줄 수 있다는 것을

한 민족, 하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들은 무얼 하나요?

이제 보고 싶어요.
당신들의 마음을 담은 통일의 하늘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당신들의 땀과 열정을 요리한 통일의 음식을….

이제 느끼고 싶어요
당신들과 우리의 걸음으로 다져진
통일의 땅 냄새를...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나요?
당신들과 우리의 가슴 속에
한 송이 통일 꽃이 피어
향기로운 꽃내음 되어 가득 퍼져나가는 것을!

그 꽃내음이 평화와 화합을 싣고
한반도 가득 퍼져나가는 것을!





최우수상

별이 모여 빛이 되고

동성고1 • 박대우

무엇하나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 둘 별이 나타난다.

50년 전,
희미한 빛조차 없던 그 시절
어둠이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네.

너무나 견고한 벽이여
허물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구나.

그러나 하나 되려는 너와 나의 마음은
별이 되어 그 벽으로 다가간다.

하나 둘 별이 모여
저 벽에 틈을 만들고
벽에 틈이 나는 만큼
너와 나의 마음은 동화되어 간다.

별 하나 모여
너와 나 사이의 거리 보이고
별 둘 모여
너와 나의 마음 보인다.

저 별이 많이 모여
벽을 가릴 정도가 되면
너와 나의 마음은
하나가 될 거라 확신한다.





우수상

통일됐네, 통일됐어


학강초4 • 박노주

통일됐네, 통일됐어
통일기차 오고가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기쁨이네, 기쁨이야

통일됐네, 통일됐어
북한남한 없어지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우리모두 대한민국

통일됐네, 통일됐어
휴전선이 없어지고
싸울필요 없어지니
살기좋은 대한민국

통일됐네, 통일됐어
금강산을 유람하고
백두산을 구경하니
멋진경치 대한민국



통일됐네, 통일됐어
축구팀을 만들어서
월드컵에 나가보니
우승했네 대한민국

통일됐네, 통일됐어
북한말도 없어지고
남한말도 없어져서
공통말이 생겼다네

통일됐네, 통일됐어
우리모두 힘을 합쳐
평화통일 이룩하니
천하무적 대한민국

통일됐네, 통일됐어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춤 추고 놀아보자
얼썬얼썬 대한민국



우수상

희망게임

정광중2·김정록

끊어진 녹슨 철길 위에
남과 북의 이별의 영혼들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립디 그리운 가족들의
애끓는 사연들이 컷가에 울려 퍼지고
비무장 지대의 매섭게 잠든 지뢰들의
슬프디 슬픈 사연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하나 둘 열리는 남과 북
게임을 하는 우리의 즐거운 몸짓처럼
두드려라 열려라 통일의 세계로

비무장의 철조망에 사연 많은
잡초 친구들
열려서 뚫려서 대화의 장으로
북녘 땅의 친구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끊어진 철길 위에 관광열차가 다니는
그 시간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릴 것이다.
기다려라
우리의 희망 통일의 영혼들아





우수상


그것을 넘어 그곳으로 간다

수피아여고1 • 김 한 니

하늘을 본다
새하얀 구름이
뭉개뭉개 지나간다
바다 건너 하늘도 아닐진대
왜 나는 그것을 구름만도 못 지나가나

내 만약 구름이 되어
그것을 지날 수 있다면
그것의 쇠철 가시가지마다
내 몸이 하얗게 갈기갈기 되어도
기뻐 눈물 흘리며 지나가리

하늘을 본다
새파란 풍선이
두둥실 떠간다
높고 빠른 그것을 훌쩍 넘어
그곳으로 떠간다



내 만약 풍선이 되어
그것을 넘는다면
그것의 쇠철 가시가시에 찢려
평 하고 터질지라도
기뻐 눈물 흘리며 떠가리

하늘을 본다
회색빛 비둘기가
훨훨 날아간다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것을 자유롭게 날아간다

내 만약 비둘기 되어
그것을 넘는다면
그것의 쇠철 가시가시에 찢려
살이 찢기고 피가 난대도
기뻐 눈물 흘리며 날아가리

그것을 넘어 그곳으로 가는
구름아 전해다오
우리 누이 잘 있는가
풍선아 전해다오
나는 잘 있다고
비둘기야 전해다오
우리 곧 웃으며 다시
만나리라고





장려상

통일의 나라로

광천초5·김도연


나는 나, 너는 너
헤어져 따로 살아온 지 55년
슬픔의 시간

할아버지의 한숨으로
할머니의 눈물로
얼룩진 긴 세월

바람아
불어다오

비야
내려다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한 나라 한 민족
하나의 강산



기쁨의 바람으로
희망의 빗줄기로
적셔다오

흘러가는 구름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만은 통해

아무리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어도
마음만은 통하지

우리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화합의 노래를 불러요
통일의 노래를 불러요

우리 서로 만나서
희망의 싹을 틔워요
기쁨의 나무를 심어요





장려상

안녕의 설렘

수피아여중2 · 신 누리


벽찬 가슴 떠안고
갈라져 버린
가족들을 만납니다.

설렘 반, 불안 반

자꾸만 손톱을 뜯고
다리도 떨어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합니다.

너무 버거워
터질 것 같은 마음에
괴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곧
푸른 하늘 비둘기가 되어
저 멀리 날아오릅니다.



긴 세월 동안
흘러 넘칠만한 눈물과 설움들
모두 잘 참고 견뎠다고
하늘이 주시는 선물일까요?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기쁨과 감격을 가득 담아
뜨겁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던 나인데
이 시간은 마술을 부린 것처럼
말들이 슬슬 풀려 나옵니다.

짙막한 만남 후엔
기다란 이별이
다시 우릴 덮쳐옵니다.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린 다음을 기다리며
한 없이 손을 흔듭니다.





장려상

고목아래서

대광여고2·김지현


늘어질 대로 늘어진
검푸른 옷고름
그 처연한 손짓의 떨림에
살짝 가슴을 포개고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당신은 고이 잡아주실 수 있으려나

이미 얼룩진 그 자리
스며버린 눈물의 속삭임에도
요동치는 가슴속 푸른 물결

설레는 두근거림과
사그라진 나의 불씨
양팔 가득 끌어안으니

아직은 북녘으로
치우쳐진 그대의 손길 따라
벽 차는 나의 꿈 그려보고



다시 한번
썩어버린 그 자리
그대의 그 살결을
뜨거운 나의 숨결로 떨림으로
구석구석
쏟아 주리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처음부터 하나이듯
핏줄이 뜨거운
너와 나도 하나인데

금강산에 함께 오르는 날
한라산을 같이 걷어가는 날
두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 되어서

06 대전광역시*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대-한민국의 힘! _127
- 제2땅굴 전망대에서 _130
- 염원의 태양 _134
-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_136
- 통일의 보 _138
- 해동(解東) _141
- 통일은 _144
- 하늘에 띄우는 편지 _146
- 하나가 되는 그날 _148



최우수상

대~한민국의 힘!

남선초6·박근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우리 할아버지 주름살이
더 깊어 보이는 달


전쟁터에서 잃은 친구 생각에
전쟁터에서 잃은 가족 생각에

6월은 월드컵의 달

동그란 축구공 하나로
대한민국이 푹푹 뭉치는 달

너도 나도 붉은 악마 되어
너도 나도 하나 되어
대~한민국!

할아버지!
6월은 하나 되는 달이에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있으면
경의선 열차도 신나게 달리고
단헛던 휴전선이 활짝 열리고

할아버지 소원도
우리들의 소원도
통일! 통일이잖아요

온 세상이 놀란 붉은 악마의 힘
이제는, 이제는
가장 멋진 통일로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요

얼음 보숭이 아이스크림
서로 나눠 먹으며
북한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6월은 하나 되는 달이에요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달이에요





최우수상


제2땅굴 전망대에서

대전서중2 · 박혜람

여름이 점점 짙어가는
현충일
제 2땅굴 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니
비무장 지대는
숲으로 덮여 싱그럽고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빛 물결이 일고 있었다.


56년 전 유월 어느 날
500고지 전투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시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피가
저 나무와 풀들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생각하니
'짹' 하고 가슴이 아파 왔다.



나무에
얼룩진 피
풀잎에 얼룩진 피는
지워졌지만
우리 할머니
우리 가족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무슨 수로도
지울 수 없는
얼룩진 피의 자국으로 남았다.

파란 제복을 입은
안내원 언니가
피의 500고지를 설명할 때
전망대 창 밖으로
하얀 백로 한 마리가
우리 할아버지 혼인 양
훤훤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여름이 점점 깊어 가는 현충일
제 2땅굴 전망대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바람은
이중삼중 철책을 넘어와
좌좌 나무를 흔들며 지나가고
전망대 바로 밑에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오가다
끊어진 마지막 역
월정리 역이 보이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철마가 녹슬어
스러져가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현충일에
북녘 땅을 바라보니
새들은 자유롭게

남북한을 날아다니며
우리에게 뜻 깊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이제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 보라고….





최우수상

영원의 태양

대성고2 · 홍대호

깊은 어둠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문을 찾는다.
어둠 안에 두 바람, 서로를 부른다.

봄이 오지만 볼 수 없는 애처로운 눈빛과
주저앉을지 모르는 서로에게
따스한 기운의 손을 내밀어주어라.

가여웠던 눈물이 희열의 꽃이 되는 날,
해는 떠오르리라. 과거 그 찬란했던
동방의 제왕이 만발을 막던 가시나무와
안개와 빨간 리본을 거두어가리라.

내어달려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한 송이의 꽃으로 대지를 물들일 수 있다면
높은 하늘의 해는 서산 너머로 떠나지 않으리.

안시성의 피와 하얼빈의 총성은
두 바람이 아닌 한 송이 꽃을 위함이리니.

두 바람이 돌풍을 멀리할 때
흔들리는 꽃의 향을 맡을 수 있으리.





우수상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성룡초6·이정인

현충일 아침
소중히 간직해둔 태극기를
깃 폭 만큼 내려서
조기를 게양한다.

뚜우, 뚜우, 뚜우
현충원 견학을 갔을 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수많은 무덤들을 보면서
정성 모아 묵념을 올렸다.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해
애쓰며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자라는
새싹들을 보았다.

공중도덕 지키기
웃어른 공격하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기

작은 새싹 하나는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우리들의 숙제이며 약속이다.





우수상

통일의 보

월평중3·김주현


터진 보물은
견잡을 수 없습니다.

아귀처럼 밀려드는
피비린내를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날
님의 팔
님의 다리는
해를 닮은 보가 되셨습니다.

그날
핏빛으로 물든
풀꽃과 나눈
님의 마지막 호흡은
오늘
이렇게 생명의 보가 되셨습니다.

자유와 평화로 출렁이는
보물 속에서



태극기 자랑스럽게
만방을 누비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도로 넘실대는
물결 속에서
아리랑 민요도 흥겹게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푸른 솔잎 님을 닮아
하이얀 얼굴의 목련으로
봄 하늘 가득 피어나면
펑 소리도 반가와
가슴이 뛰놀 것입니다.

못다 하신
님의 사랑
하늘을 따라
구름을 따라
북녘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제
님의 못다 하신 숨결을 따라
작은 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립고
아픈 가슴들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통일의 보가 되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처럼
님을 따라
님을 따라
통일의 꽃 보를 활짝 피우고자 합니다.





우수상


해동(解凍)

호수돈여고2·장 애 리

발밑에 멈춰버린 바다
그 위로
파란 갈매기 한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다

짹짹한 것들은
이미 구름으로 떠버린 지 오래
많은 이가 울며 간 땅은
한쪽은 위로
나머지 한쪽은 아래로
끝도 없이 흐른다

남은 것이라곤
뜰들이다 못해 불어터진
수많은 시간들 위에
도장처럼 찍힌
눈물 자국



톡
터뜨리면

신 살 난 꼬마의 목울대에서
그르렁거리며 튀어나오는 소리
어머니-
봇짐 가득 짊어진 오라버니의
힘에 겨운 어깨위로
햇살처럼 퍼진다

눈부심에 고개를 숙이고 보니
얼음판 같던 바다는 어느새
녹아버리고
지칠 줄 모르고 흐르던 하늘도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선다

물 속에 굳어있던
하얀 갈매기 한마리가

부르르 떨며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이내
파란 갈매기와 함께
햇살 속으로

날아오른다





장려상

통일은

대전둔원초5·양유현

통일은
햇빛이다.

이산가족의
눈물어린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햇빛이다.

통일은
물이다.

남북의
경계선에
시들어가는 꽃을
살리는 신기한 물이다.

통일은
땅이다.

우리의 꽃이
활짝 피어나
후손에 씨를 뿌리고
웃음이 넘치는 한 덩이 땅이다.





장려상

하늘에 띄우는 편지


둔산중1 • 임지인

오늘도 어김없이
공원에 나와
나무아래 정답게 노니는
비둘기 한 쌍을 봅니다.

먹이를 찾은 비둘기 한 마리
제 짝 입에 물어다 주고
받아먹은 또 한 마리
그 짝 날개깃을 털어주는
다정한 모습을

기억하세요?
처음 우리가 만났던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을
그리고 두 손을 꼬옥 잡고
고백했던 그날을.

그 따스함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이듬해 유월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긴 채
그렇게 돌아섰던 당신의 모습

오늘도 이렇게 북녘 하늘 바라보고
당신의 안부를 묻고 또 묻는데

당신을 바라보던 스무 살 적 볼 마냥
붉어지는 저 하늘빛이
둥지로 향하는 비둘기 한 쌍의
날갯짓을 재촉하고
이제는 세월의 나이테가
가득 그려진 제 손을
곱게 물들입니다.

언젠가 꽃이 그날처럼 훑날리는 날
다시 만나리라
꼭 그날이 오리라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며
오늘도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6월 하늘에 살며시 띄워 봅니다.



장려상


하나가 되는 그날

중일고2 · 염승한

경의선이 이어지는
그날이면
우리 민족 시퍼런 강물로
눈물겹게, 눈물겹게
서로 만나 흐르겠지
그 시절
사랑과 화목으로 눈부셨던
한반도의 향기들.

뜨거운 피의 계절을 흘러
그렇게 흘러
너무도 떨어진 하늘이여 강물이여
서로가 서로를 불러
눈빛 맞추고 보듬어주던
그들의 아픔과 눈물
이곳에 얼룩져 남아있네.

눈물과 한숨으로 젖는
이 산하



우리는 시퍼렇게 멍들어 흐르는
강물의 뒤척임을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뿌리내려 뜨겁게 뒹굴던 삶을
모두 버리고
헤어져 떠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같은 땅 지구 위에
다른 색으로 표시된
하늘과 강물
손 뻗으면 닿을 듯
아, 그렇게 가까운
우리 땅이여

언젠가는 갈라진
하늘과 강물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그날
7천만이 목 놓아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날

그날이면
웃음꽃 눈물 꽃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강물은
눈부시게, 눈부시게 흐르리.



07 울산광역시*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통일기차를 타고 _153
- 허리띠를 맨 푸른 오랑이 _155
- 기억 _156
- 통일 수박 _158
- 할아버지와 손녀 _160
- 고향 _162
- 외할아버지의 노랫소리 _163
- 오랑이 허리가 잘렸다 _165
- 통일 전망대 _168



최우수상

통일 기차를 타고

척과초6·민지원

칙칙폭폭 태극무늬 통일 기차
남북 친구들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며 타지요
금강산으로, 한라산으로
화통의 커다란 기침소리

“끼익! 여기는 평양입니다”
남북 친구들 손에 손잡고
푸른 잔디밭에 털썩 앉는다
손수건에 싸인 맛있는 도시락
보자기에 싸인 맛있는 팥밥

“애, 이것 좀 먹을래?”
“동무, 이거 한 번 드셔보시라요”
모두 모두 정답게 도시락을 먹는다
병아리들 종종걸음
북한 친구들은 평양에서 내린다네
하얀 소매 뒤로 눈물 감추고
빨간 소매 뒤로 눈물 감추고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잘 가라요”
우리는
우리는 친구





최우수상

허리띠를 맨 푸른 호랑이

명덕여중3·신연정

내 이름은 한반도예요
나는 다른 호랑이와 달라요
나는 털이 아닌 풀이 났어요
나는 빨간 허리띠를 매고 있어요

내 이름은 한반도예요
내 코에서 놀던 바람은
꼬리로 놀러갈 수 없어요
내 꼬리에서 놀던 물방울도
내 코로 올 수 없어요
빨간 허리띠를 절대로 넘으면 안 되거든요

내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을 때
누군가에 의해 빨간 허리띠가 채워졌어요
50년도 지난 이 허리띠를
하루빨리 누군가가 풀어주길 원해요
숨 막히고 답답한 허리띠를
이제는 깨끗이 지우고 싶어요.



최우수상

기억

울산과학고1 • 박 초 룡

나는 기억한다.

우리 집 앞뜰에 봉선화가 한 가득 피어 있었던 것을
그 앞뜰에서 동생과 함께 뛰놀던 나의 모습을

그날 앞뜰에 매서운 비바람이 쳤고
무서움에 떨었던 나의 모습을
그날 앞뜰의 봉선화가 모두 꺾어버렸던 모습을
그날 이후 동생과 놀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을
그후 50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매서운 비바람이
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 집 앞뜰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다시 우리 집 앞뜰에 봉선화가 피기만을
다시 우리 집 앞뜰에서 동생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려 왔던 나의 모습을

기다림 속에 다시 피어나고 있는
봉선화의 모습을
이제 꽃을 피우려하는 나의 봉선화를
곧 꽃물을 들일 수 있을 거라는 나의 믿음을
나는 기억한다.





우수상

통일 수박


남산초5 • 박주현

한국 전쟁 때문에
깨진 수박처럼
짜-어-억
갈라져 버린
반쪽이 나라 대한민국

서로 싸우다가
휴전 났지만
너무 오래
너무 길게
쉬고만 있네

이미 반 잘린
수박처럼
잘려진 지 오래된
가슴 아픈 대한민국

쪼개진 수박을
다시 붙이는 것은



수박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가 보다
그렇다고 수박처럼
여러 개도 아닌
다시 만들 수도 없는
단 하나의 대한민국

여름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씨처럼
한국 전쟁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이산가족들

이제는 힘을 합쳐
흩어진 씨앗 모아다가
한 알 한 알 잘 키워서
통일 수박을 먹는
그날을 맞이해야 할 텐데….



우수상


할아버지와 손녀

남창중2 · 신혜성

주름진 이마
붉은 손
마디마디 마다
흘러 내려온 세월이
굽이칠 때마다
꼬깁이처럼
지금도
아픔으로 자리 잡은
생채기는
서러운 파란 하늘 속에
오늘도 녹아있다.

삼팔선 넘어설 땐
중공군을 피해서였지
내 형제를 버린 건 아니었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고향으로 가고파



긴 목 주름 펴고
실눈으로 저 먼 하늘
눈물로 그리워할 때
눈물은 강물되어
고향으로 흘러가리.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키 작고 당찬 소녀의
소망은
희미한 눈
더 멀어지기 전에
조국이 하나 되어
우리네 할아버지의 영원한
고향을 찾아드리고 싶다.



우수상

고향

중앙고3 · 남윤우

숨을 쉬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며
고향을 떠나온 것이
이렇게나 긴 여행이 되었다네

뒤돌아 갈 길 없는
초라한 발걸음으로
오늘도 난
수많은 인파 속에 죽어 산다네

자잘한 그리움들은
가슴에 묻어둔다 해도
이제는 단절된 길
그 끝에 서 있을 때면
내게 소리 없이 날아드는
한 자루의 비수.




장려상

외할아버지의 노랫소리

옥동초 6·오미리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외할아버지의
노랫소리
꼭!
고향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실 것처럼
눈물을
그렁이시며
마음을
이내
쏟아내시는
외할아버지의
노랫소리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바람아, 바람아.
세차게 불어라!
할아버지의
힘없는
노랫소리
신고
머언
함경도 고향집으로
엄마의
귓가에
누나의
귓가에
들리고
또
들려다오



장려상

호랑이 허리가 잘렸다

중앙중2·이재윤

뚝 !!!!!

잘려버렸다, 호랑이의 기운찬 기상이.
수만의 피로 얼룩진 눈물의 태극기도
흔들지 못한 채.

살인의 살인.

학살의 학살.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다림.

우리는 하나인 것을

생각이 달라도 둘은 아닌 것을

이미 끊긴 관심을 다시 잇고

이미 끊긴 사랑을 다시 이어서

서로 부둥켜안고


어깨춤을 추어보네.

아리랑이 절로 나네.

너와 나

나와 너

너희와 우리



우리와 너희
유치하게 싸우지 말고
반목하는 청과 홍이여
태극기의 태극을 잊었는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움을!

어찌하여
반목하고, 물어뜯고, 노려보고,
충 겨누고 으르렁거리나?
어찌하여
반성할 줄 모르고 굽히지 않고,
협박하고, 모른 체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란 말을 쓰지 않는가?
'너희'라고만 하고 그것을 꼭 참는가?

북받쳐 오르는 민족애의 눈물.
철책 따윈 막지 못하고,

총 따위에 물러서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내리는 참회의 눈물.

화해의 소 떼처럼
희망의 비료처럼

왜 사랑할 줄 모르는가?
왜 아껴줄 줄 모르는가?





장려상

통일 전망대

효정고2·김은승


한 할아버지가 전망대에 섰습니다.

그분은
이미 너무 먼 곳이 되어버린 저곳에
그리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땐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무것도 모른 채

검은 대포소리와 뜨거운 불길을 피해
눈물 콧물 쏟으며 어머니와 헤어지고
형의 등에 업힌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50년이 넘어
아버지가 되어주신 형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기억할 코흘리개 아이 모습을 떨쳐 버리고



호호백발 할아버지 모습으로
북녘 가까운 이 전망대에
섰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어머니를 붙잡고
헤어지지 말 것을...

이곳에 서서 그분은
그때 그 아이처럼
눈물을 쏟으며

전쟁이 빼앗아 버린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누가!
이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행복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08 경기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태극무늬 어울림 _173
- 형의 편지 _176
- 할머니 전상서 _180
- 나를 밝고 지나가세요 _182
- 언젠간 보고픈 개성 땅
오랑나비 날아가겠지 _184
- 할아버지의 귀향길 _187
- 민들레 꽃씨 _189
- 하나의 끈 _191
- 6월의 비 _195



최우수상

태극무늬 어울림

연서초6·채 지원


태극무늬 청홍색
참 잘 어울려

감싸 안고 휘도는
청홍의 무늬 속엔
끝없는 발전과 생성이 엮보여

남과 북도 그렇게
어울릴 순 없을까?

백두봉의 구름과
한라봉의 구름이
어우러져 흐르듯이

북쪽 아이, 남쪽 아이
손 이어 잡고 크게크게
원무 출 순 없을까?



오십 년 쌓아올린
커다란 담장에
반가운 작은 쪽문이 달렸지

담장의 슬픔 간직한
이산가족 드나드는
작은 쪽문

부모형제
아들 딸 감싸 안고
뜨거운 눈물 흘리다 보면

언 땅이 녹을 거야
담장도 무너질 거야

담 벽 없이 확 트인
삼천리금수강산

동해 가르며
해돋이 힘찰 거야!
청홍의
태극무늬
참 잘 어울려 흐르듯

남과 북
어깨 걸고
온 누리를 누빌 거야!





최우수상


형의 편지

풍생중1 · 조민수

삼팔선을 지키며
폴벌레 우는 밤이면
어둠 속에서 부모님 생각
가슴에 하얗게 차올라
눈물 삼킨다던 형

형의 편지 받던 날
고모는
눈물로 편지지를 적셨다네
매듭 끊은 손으로
편지지 쓰다듬고 쓰다듬던
고모의 두 눈은 어느새
퉁퉁 부어올랐지

하지만 형
형은 말하지
통곡의 6·25 전쟁으로
남과 북 삼팔선 사이에 두고
손 한번 잡을 수 없는




이산가족은
날마다 편지를 쓴다고

쏟아지는 눈물로
지친 걸음으로
통곡하는 어깨로 쓰는 편지
부치지 못한 편지
가슴에 피멍으로 새긴다 했지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통일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써 보냈던 형의 편지

1950년 6월 25일
그날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2006년 6월
형은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
서서히 다가오는 통일을



서서히 남과 북은 마음을 잇고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가며
공기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

형은 그곳에서
통일의 신호탄이 울리기를 기다려
철조망 녹슨 가시를 뽑을 거라고 했지

가슴에 그리던 부모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형의 편지는 끝이 나고
삼팔선 가시철조망 위로
빨강게 해가 떠올랐을 거야

삼팔선을 지키며
통일의 날을 기다리다던 형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뽑힐

분단의 녹슨 철조망
그 사람이 바로 형이기를 바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바래





최우수상

할머니 전상서


윤천고3·강서희

바람이 분다.
그의 왼팔 소매를 필력이는 바닷바람이 차다.
검은 먹구름 태풍 안고 들이닥친
그 어느 날 단일이 할아버지 왼팔은
그렇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녹아버렸다.

초례청 어색하게 비켜선 낡은 흑백사진 한 장!
할아버진 선혈을 토해내듯 가슴으로 안았다.
두 팔로 안을 수 없는 그 왼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
리고 있었다.

-이보라우, 이봐?
거져 에미나이, 살아만 있으라우!-
주름진 입술위로 양다물어 이빨자국 선연히 새겼다.
할아버진 지나간 환영에 허우적댄다.

나누어진 가슴으로 살아가지는 단일이 할아버지는
소리하여 우는 법을 모른다.



그저 가슴 쓸어내리듯 휴! 하고 검붉은 바다를
바라보고 속정만 토해 낸다.

희뿌연 한 안갯속에 덧씌워 바라다 뵈는 바다는
할아버지 바지자락을 단일이 사과 배시시 물어
아삭 이뒀 그렇게 스며든다.

그 모습 멀거니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힘차게 단일이를 껴안는다.
바다를 품은 그의 빈소매도 흔들리는 열차 안에
서 흥겨이 춤을 춘다.
-이보라우! 이봐?
거저 에미나이, 살아만 있으라우!-



우수상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동두천초6·김도희


전 53년 전에 태어났지요.

그땐 제가
금방 없어질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지요.

제가 처음 태어나던 날.
많은 이들이 나를 보며
눈물과 한숨을 지었어요.

얼마 못 살 줄 알았던 저인데
어느덧 원세 살이 되었네요.

지금은
많은 이들이 나를 보며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5000년의 긴 역사를 함께 한
한민족이 나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는데요.

산과 물은 하나가 되어 흐르는데
나로 인해 두 동강 난
우리 땅과 우리 마음을
어떡하면 좋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내 등을 넘어 가세요.

남과 북이 나를 넘어
가는 그날!

나는 없어져도
덩실 덩실
춤추는 사람들 틈에 끼어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출게요.



우수상

언젠간 보고픈 개성 땅 호랑나비 날아가겠지

감정중1 · 조은나래

애기봉 산 기슭아래


오랜 세월이 덕지덕지 물은 기와집 속에
살아생전 고향 가신다는 생각은
히말라야의 만년설 같이 녹지 않는,
가슴 시린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다.

언제쯤 고향 땅 개성 갈까

빼걱거리는 자개농 아래 깊숙이 넣어둔,
증조할머니가 주신 빛바랜 금반지 하나
보고 또 보고 만지시는 주름진 손은,

50년 전 복숭아 빛 어린 손 되어
만지고 또 만지시건만

통일 소식은 저 넘어 눈길조차 주지 않아
이 어린 손녀는 가슴이 저려온다.



언제쯤 고향 땅 개성 갈까

올해도 감꽃 목걸이 해주신
증조할머니의 추억어린 감꽃들이
장독 뒤 감나무 위에 옹기종기 붙어있건만

통일 소식은 저 멀리 메아리 되어 되돌아와,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할아버지 맥고모자, 손색양복 입고
할머니 흰 모시옷, 하얀 양산 쓰고
두 분 손잡고 고향 개성 땅 갈 날 언제쯤 올까?

언젠간
할머니 채마밭 장나리 꽃 위 호랑나비
고향 개성 땅 날아갈 때면

나는
길가에 주저앉은 솜털민들레

꽃대 꺾어 후후 불어
하얀 눈꽃가루 만들고
길가에 활짝 핀 개망초 꽃 꺾어 꽃다발 만들고,
뽀뽀 뽀뽀 피리블며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고향 개성 땅 갈 날 멀지 않겠지.





우수상

할아버지의 귀향길

수리고2 · 주은혜

6월이 오면
거르는 일없이
그리움이 덧나는 우리 할아버지
선불리 말씀 올 안 하십니다.

선잠을 털어놓고 쫓기듯
고향을 떠나오신 날
낮선 땅에 주저앉아
찢긴 생살 헝겊으로 칭칭 감고
토해냈던 설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서산조차 막혀버린
북녘을 바라보다 오시면
며칠을 실어증으로
애를 태우십니다.

“이제 저희들을 보고 사세요.”
아버지의 간곡한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시더니
경의선 철도가 이어졌다는
꿈같은 소식에
아픈 관절도 잊으시고
신발 끈 고쳐 매십니다.

오늘밤은 꿈속에서
하얗게 핀 꽃길 따라
고향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장려상


민들레 꽃씨

여흥초5 • 최 예 진

멀고 긴 여행을 떠난
민들레 꽃씨 가족들

저 멀리 뚝 끊긴 휴전선에서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북녘 땅이 그리운
산골 할머니의 소망을
새기고 또 새기며
휴전선을 넘어 갑니다.

아무리 낯선 땅이라도
아무리 굳은 땅이라도
시원한 봄비만 내려주면
꽃씨도, 굳은 땅도
모두 너그러워집니다.
가녀린 꽃씨 가족은
봄비가 내릴
따뜻한 북녘 땅에
고스란히 파고듭니다.



산골 할머니가 원하신 것이
이런 것일까요?
하늘은 왜 자꾸만
비를 내려주고 싶을까요?
단단하고 꿈쩍 않던
북녘 땅을
왜 녹여 준 것일까요?

민들레 씨는 알고 있습니다.
봄비가 북녘 땅을 녹이고
씨앗이 땅에 스며드는 동안
산골 할머니는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민들레 씨앗들이 할머니의 소원을
북녘 땅에 뿌리로 전해
남과 북, 작은 꽃송이조차
통일을 원하고
또 원한다는 것을.



하나의 끈


가람중3·강혜연

하나의 끈이,
한 가닥이었던 끈이
어느 날
한 순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언제까지나
이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한 가닥일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두 가닥의 줄이 돼 버린,
그렇지만 짧아져 버린
그 끈을 끊은 사람을
찾고, 또 찾아봅니다.


‘쥐가 몰래 끊어 놓고
갔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의 짓도 아닐 거라고….



해맑은 표정을 하고 있던
한 아이가 그 실을 보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끊어져 버렸냐고 원망하듯이….

어른들은 아이에게 말해 줄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는
눈물을 닦고
'두 가닥'의 실을
어른들에게 내밉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어른들을 바라보는
아이의 까맣고
빛나는 눈이 말합니다.
“뉘어 주세요.”



어른들은 조심스레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실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묶습니다.

묶어진 실을 보다가
아이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매듭을 가리킵니다.
아이의 눈빛이 또 말합니다.
“여긴 왜 불룩 나왔어요?”

한참을 있다가
어른들이 대답합니다.

“그건, 실들이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껴안고 있는 거란다.”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가엔
그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장려상

6월의 비

토평고1·김 예지

달빛마저 숨죽인 6월의 그믐밤.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린다.
군인의 철모를 타고,
무성한 잡풀을 타고,
빗방울이 떨어진다.
철책을 향하고 선 군인은 말이 없다.

흙 한 줍에
한 바가지의 피가 스민 곳.
흙 한 줍에
백만의 설움이 묻힌 곳.

비야, 비야.
피도, 설움도 다 씻어가라.
군인은 속으로만 윈다.

깊게 패인 주름처럼 노쇠한 할머니는
더 이상 회한을 눈가의 뜨거운 체온으로
담지 못하시니

성성한 백발과 같이 늘어가는 그리움을 품고
영영 내 고향, 푸른 산천을 등지셨다.

달빛마저 숨죽인 6월의 그믐밤.
할머니의 뜨거운 울분을 안고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린다.
군인의 상기된 두 뺨 위로
물방울이 구른다.
철책을 향하고 선 군인은 말이 없고,
바람은 내 고향, 푸른 산천을 향해서 분다.



09 강원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새들처럼 _199
- 겨울은 가고 봄을 지나 _201
- 그날이 오면 _203
-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_205
- 우리는 하나되어 _207
- 아우에게 _209
- 우리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_211
- 누이 _213
- 우리는 하나 _215



최우수상

새들처럼

갑천초6·나 슬기

아침 등곶길 옆 나뭇가지에 앉아
목 놓아 울부짖는 새 한 마리

부서진 등지 아래
흩어진 어린 새의 깃털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앉아
돌아오지 않는 어린 새끼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어미 새의 울음소리가
오늘도 나의 등곶길을 아프게 한다.

새들도 헤어진 가족을 그리며
저리도 애타게 울부짖는데
50년 이상을 애태우며 살아오신
이산가족의 아픔이야 오죽하라!

이제는 아무리 불러보아도
메아리로만 돌아오는 기다림의 날에
새들처럼 자유로운 만남을 선물하자.
만나고 싶을 때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너와 네가 아닌 우리가 되는 날,
새들처럼 마음의 하늘을 담아 드리자.
이산가족이 마음껏 날개를 펴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나는,
새들처럼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드리자.

그날이 올 때까지
하늘을 만들고 둥지를 다시 만들자.





최우수상

겨울은 가고 봄을 지나

상동중3·김효영

백발 돼버린 노인의 머리카락 같은
계절입니다
기나긴 50여 년 여행길
지치고 고단한 상처 다독여
식지 않은 희망으로
차가운 바람 뒷자락에 날려 보내드립니다

언 땅 뚫고 새싹 돌아나는
계절 오면
흘날리는 민들레 씨 위에
가슴 터질듯 우리 소망 또 담아
북녘 어딘가에 뿌리내렸을
우리 마음 한 조각에 더 보태드립니다

태양의 힘찬 기운 넘실거리는
계절 오면
쏟아지는 태양빛 불러 모아
눈물과 아픔 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통일의 꿈이
흐드러지게 피게 하렵니다

금빛 바람 살랑이는
계절 오면
마주잡은 손 위에 놓인 열매
하루종일 우리 마음에 들어차
웃음으로 넘쳐날 때
기쁨으로 거두고 또 거두렵니다





최우수상

그날이 오면

장성여고3·장윤정

그날이 오면 깨워 달라 하셨죠
우리 할머니는….

일구던 텃밭을 두고 와서
가뭇 든 논밭같이 갈라진
두 손이 허전하시다던 할머니

감자며, 고구마며
아무리 호미질을 해 봐도
단단히 영글어 안기는 게 없다고
한탄하시던 할머니

달고 달던 봄비가 내리던 날이면
할아버지랑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춰다며
꼭 지금만큼 진달래꽃이 활짝 피던 날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노닐던 곳이라고

정말 눈부시게 빛나던 그 땅 위에
다시 한번 밭이나 디더볼
그날이 오게 되길 바라다며
봄비처럼 내 마음을 적셔버린 할머니

진달래와 함께 쓰러지신 할머니
그 꽃씨를 받아 제가 만들겠어요

그날이 오면...
할머니의 텃밭에 이 꽃씨를 심겠습니다.





우수상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오색초6·권 다영

할머니 어렸을 적
그리도 조그마했다던
저 앞산의 나무들은
키가 벌써 훌쩍 커 버려
할머니의 키를 저 만치 넘어 버렸고,

할머니의 언니 떠나고
그리움을 매워 주던
옛적 사진들도
이제는 찢어지고 낡아 버려
그 흔적조차 알아보기 힘들고

언니와 산나물 캐러
신나게 뛰어 가던
복사꽃 가득 피었던 고향 길도
한반도를 가로막은 선 하나 때문에
꿈에서나마 그럴 수밖에 없어진 지금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고,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할머니는 오늘도
살아생전 언니의 손 한번 만져 보게 해 달라고,
살아생전 언니의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할머니의 소원 들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한다.





우수상

우리는 하나 되어

원주중2·이창은

강물을 소리 없이 남북으로 흐르고
야속한 철새 끼룩거리는 울음소리
안타깝게 매아리칩니다.
수많은 이의 한숨과 눈물에도
관문점과 휴전선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뻗고
금수강산이 하나일진데
한겨레의 뜨거운 피가 심장 속에 요동치건만.
하나 되지 못함은
누구의 허물인지요.

광개토대왕의 말발굽소리는
우리 겨레의 가슴에 살아있고
김구선생님의 가르침은 아직 가슴에 남아있건만...
왜 우리는 반세기 넘도록
분단 고통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지요.

한민족 한겨레임이
영혼 깊이 아로새겨졌기에

우리는 하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같고 뿌리가 같기에!

우리들이 흘린 진정한 눈물에
통일의 염원이 자양분이 되어
통일의 싹은 힘차게 솟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겨레의 찬란한 이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수상

아우에게

함백여고2 • 최 선 지

아우야, 어찌 잘 지내느냐
아무리 불러보아도
오늘도 넌 대답이 없다.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네가 있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 바람 속 너의 향기를 찾으려 애를 써 봐도
50년 세월의 향기가
나를 뒤엎는구나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나의 가슴을 스친다.
홀로 남겨진 너의 사연이
이 가슴에 닿을 듯도 하건 만은
바람은 무심코 날 지나쳐 버리는구나

오늘도 어제도
넌 대답이 없고
무심한 바람만이 날 스치는구나

아우야, 아우야,
대답 없는 나의 아우야
넌 어찌 잘 지내느냐





우리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일산초4·유진호

봄날의 햇살은 너무나 따사롭고
봄날의 하늘은 너무나 푸르는데
이런 아름다움들을 저 북녘의 친구들도
느끼며 지낼까?

우리의 오월은 부모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즐겁기만 한데
이 오월의 기쁨을 북녘의 친구들도
즐기고 있을까?

팬히 우리만 즐거운 것 같아서
북녘의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프리카 친구들도 도와주고
한 식구처럼 지내는 시대인데

지우개로 휴전선을 지워버리고
북녘의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이 봄 속으로 북녘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북녘의 친구들과
도시락을 싸서 함께
봄 소풍을 가면 좋겠다
북녘의 친구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놀이동산으로 가면 더욱 좋겠지

그리고 북녘의 친구들과
운동회를 하면 좋겠다
축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더욱 친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러한 행복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면 좋겠다
나만 느끼는 즐거움
나만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북녘의 친구들과 함께 느끼는
즐거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장려상

누이

인제기린중1 • 조민경

일주일을 기약한 헤어짐
누이와의 굳은 약속
어느새 내 눈가에
세월의 깊은 골을 남기고….

오랜 기다림의 연장선
눈가에 패인 골짜기마다
피어나는 아픔이
두 뺨 위에 싱글싱글 맺힌다.

뽕뽕 얼어붙은 누이의 두 손
호주머니 속에 포개던 그 온기는
시리도록 차가운 철조망의
그늘에 갇혀 버리고….

전쟁이 준 한 움큼의 고통
수많은 역겹의 세월만큼
기나긴 이별이
마음에 상처로 묻어난다.

즐거움이 스며드는 봄빛 하늘 아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만남의 시간
그저 내 입가에
누이의 이름이 살아나길
오늘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장려상

우리는 하나

삼척여고2 • 전 보라

쭉부쟁이 아득한 들판은 둘이지만
청어 떼 물결 이룬 바다는 하나다.

태백산맥 푸른 줄기는 갈리었지만
까치들 터 잡은 하늘은 하나다.

우리의 붉은 입술로는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우리 몸 가득 도는 공기는 하나다.

서로 매어 달은 깃발은 다르지만
가슴 속 웅크린 그 마음은 하나다.

남과 북 가지 친 땅은 둘이지만
이곳에 뿌리내린 씨앗은 하나다.

한낱 철조망에 갈리었을지라도
아직 우리는 하나다.

10

총청북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통일, 그날이 오면' _219
- 강으로 바다로 _221
- 평화의 외침 _223
- 남과 북을 꾀꾀 묶어주렴 _226
- 멀지 않은 만남 _227
- 우리는 이미 하나되어 _229
- 우리 할아버지 _232
- 두고 봐라! _233
- 통일 그리기 _235



최우수상

‘통일, 그날이 오면’


용성초5·염승주

통일, 그날이 오면

친구야,
철조망 걷어 낸 자리
피어난 통일 꽃을
한 움큼 따
네 머리 위에 꽂아 줄게.
우리 밝게 웃어 보자.

통일 꽃향기에
서로의 상처
훌훌 털어 보내고
너와 나
마음의 벽도 허물자.

통일 꽃 활짝 핀
교정에 마주 앉아
동화책도 나눠 읽고
우리의 꿈도 이야기 하자.



통일 그날이 오면

친구야,
두 손 꼭 잡고
통일의 깃발을 흔들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달려보자.

자랑스러운
통일 대한의 어린이로
통일을 외쳐보자.

우리는 한겨레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통일의 그날이 왔다고.



최우수상

강으로 바다로

무극중1·김경의

내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내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고여 온 웅덩이 호수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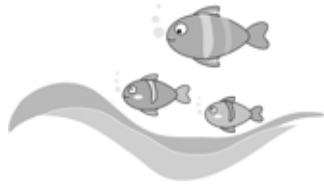
잔잔하지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분단' 이라는 이름의 웅덩이

고이고 썩어가는 호수
우리는 그 물을 띄워야 하네

흐르고 흘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너희들과 손잡은 우리들은
저 넓은 바다로 가야하네

깊이도 넓이도 모르지만
잡은 손 놓지 않고
우리들은 더 큰 세상을 향하여
높이 차오르리라





최우수상


평화의 외침

충북고2·심준

비가 온다
 먹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모든 것을 가둔 듯한 눈물의 장벽
 그곳에서 매우 모진 된바람이 불어온다
 그곳에서 매우 거친 마파람이 불어온다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여기 이곳에

백두대간 천지에선 탁한 지류 흘렀다
 금강 건너 한라 향해 비실비실 흐르다가
 장벽 만나 뚫지 못해 양 갈래로 쪼개지고
 한 줄기는 북쪽으로 다른 줄기는 남쪽으로
 굽이굽이 물길 따라 멀어져만 갔다
 못 돌아올 물길 따라 사라져만 갔다

두견마저 슬피 울던 그런 때가 있었다
 학의 울음은 구름따라 흩어져만 갔다
 종달새와 피꼬리는 구름 속을 헤매고
 봉황새는 밀려오는 먹구름을 밀어냈다
 산에, 산에 날리던 슬픈 낙엽은
 애꽃은 다람쥐만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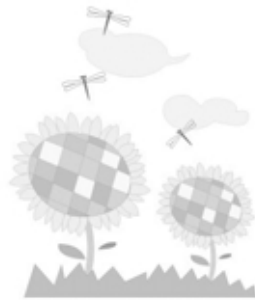
비가 그친다

맑게 갠 하늘에서 빛이 새어 나온다
영원할 듯 박혀있던 눈물의 장벽에서
불어오던 뉘바람과 몰아치던 마파람은
햇볕 받아 온순한 산들바람이 된다
그 무엇도 보이지 않던 여기 이곳은
햇살 받아 따스하고 밝은 들판이 된다

돌아오지 못할 듯했던 두 줄기의 물길은
꽃잎 싣고 태백 건너 백두로 간다
힘찬 강물 햇빛 받아 두 갈래는 하나 되고
금강 건너 천지 향해 맑은 물길 흘러간다
미소하며 웃는 얼굴 간직하고 흘러간다

두견새는 노래하며 이곳으로 다가온다
흩어졌던 학의 울음 이곳으로 다가온다
헤매던 종달새와 찌꼬리는 지저귀고
하늘 향한 봉황새의 날갯짓은 기운차다
산에, 산에 바람 타고 날리우는 민들레 씨
대지 위에 내려앉아 새 생명을 싹 틔운다

먹구름 떠난 산에는 어린 꽃이 만발하고
동물들은 뛰놀며 따스한 봄을 맞이한다
날리던 민들레 씨는 새로운 꽃이 되고
그 꽃은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라난다
푸른 쪽빛 산들바람 모든 생명 어루만지고
푸근한 대지 위에 고운 평화 깃든다





우수상

남과 북을 뽕뽕 묶어주렴

동인초2 · 권순호

통일아 통일아
딱풀이 되어
갈라진 허리 붙여주고

통일아 통일아
물감 되어
빨강, 파랑 친구 합쳐주고

통일아 통일아
약이 되어
이산가족 아픈 마음 고쳐주고

통일아 통일아
바람 되어
내 편지 북쪽 친구에게 전해주고

통일아 통일아
단단한 끈이 되어
남과 북을
뽕뽕 묶어주렴



우수상

멀지 않은 만남

보은중1·최재서

설렘, 두려움 안고 찾아간 금강산
출입국 사무소에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
포 여러분!

낮선 환영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
돌산과 큰 바위, 말 없는 풍경 우릴 맞이하고,
싸늘한 북측 군인 눈 피해 훑어보니,
한적한 시골, 입 다물고 눈 막고 발 가는 농부 뿐.

설렘, 두려움 안고 찾아간 금강산
용 한 마리 박차고 솟구친 듯 웅장한 폭포.
총칼 무시하고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경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담아내느라 허리 휘다.

설렘, 두려움 안고 찾아간 금강산
야호! 내 목소리 언제쯤 남한서 들릴까?
야호! 동포들과 함께 살 날 언제쯤 찾아올까?
국방위원장 배지 달고 해 맑게 웃는 동포들,
그 맑은 웃음이 다시 만날 날까지 가득하기를.
동포들아! 언젠가는 뜨거운 가슴으로

동포애 만끽하자.
동포들아! 나중에 만나자는 기약 이제는 그만하자.
내가 다시 찾아간 날,
얼싸 안은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더라.
내가 다시 찾아간 날 금강산, 우리의 명산이었더라.






우수상

우리는 이미 하나되어

매괴고2·임수정

찬란히 빛나는 손이여
그대의 손을 강물에 묻고
두 손 가득히 물을 마시자
그리하여
그 물이 그대의 꿈을 움직이는
첫 디딤이 되었거든
그것이 민족이었음을
그것이 너와 나였음을
우리의 꿈 위에 사뿐히 새기어 보자

그 강물에는
깊은 밤 청천강을 건너던
누군가의 눈길이
호랑이를 등지고 압록강을 건너던
슬픔의 걸음들이
남아있다
그리하여
내가 그 물을 마심은
그날의 너의 마음을 읽는 것이니



그것이 한민족의 젖줄이며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자란 형제이다

강물은
모든 생물의 어미요
이 땅에서의 선생이니
강물의 주마등을 마주함은
한반도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물을 마시는 까닭이요
물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가
민족을 알고
역사를 알게 됨은
우리는 하나라는 무언의 증표요
진실의 증거이다

이제 찬란히 빛나는 한민족들이여
주저 없이 저 강물에

손을 담그고
서로가 마주하자
그리하여 맞게 되는 내일에는
태양을 안고 있는 바다 같은
통일이 그대 가슴으로
뛰어 올 것이다





장려상

우리 할아버지

창신초5·박형규

북쪽 하늘 바라보며
조국 통일 간절히 빌었더니
흰 구름이 머리 위에 앉았다.

북쪽 하늘 바라보며
고향 노래 목 놓아 불렀더니
허리와 지팡이가 굽었다.

북쪽 하늘 바라보며
그리움의 눈물 편지 보냈더니
조국의 명산 금강산이
담장 보내 왔다.

어느새 아이처럼
금강산 가실 날
손뚱아 기다리시며
웃음 환하게 지으시는
우리 할아버지.



장려상

두고 봐라!

세광중2·노현래

붉은 물결
응원소리는
가슴을 쿵쿵 치고

슛! 날릴 때마다
주먹엔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절묘한 패스에
너도나도 숨죽이며
조마조마 가슴 졸이다
골인~!

와 -
목이 터져라 외치니
하나 된 감동의 환호가
땅을 뒤흔든다.

반 토막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가슴이 짜르륵하고
눈물이 핑-돈다.

두고 봐라
통일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감동의 푸른 물결
한반도를 더 크게 출렁일지니!





장려상

통일 그리기

영동고1·장소망

백지 위에
통일을 그린다


바람을 등지고
엇갈린 운명

강철로 된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싸우고 아파하던
고통의 세월

저 산을 보아도
갈 수 없으니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부럽다



겨울은 강철 문을
더욱더 차갑게 하고

충을 겨누며
서로를 감시하는데

눈물과 아픔뿐인
과거는 잊고

강철 문이 녹을
봄을 기다리자

우리 민족이 함께할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린다

11

충청남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공주 산림 박물관의
우리나라 지도 _239
- 기도 _241
- 금강산 가는 길 _243
- 우리나라 지도 _245
- 정오의 금물결 _247
- 통일의 노래 _249
- 그날이 오면 _251
- 등나무과 힘나무 _253
- 바람처럼 _256



최우수상

공주 산림 박물관의 우리나라 지도


배방초5·이승희

공주 산림박물관 이층에 올라가면
맑은 유리창 저 만치 아래에
하얗게 빛나는 한반도가
길게 누워 우릴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얀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을 마치고 배가 불러서
한가로이 누워 낮잠을 자는 것도 같고

저 멀리 북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랜 오른 발 하나 번쩍 들고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
힘차게 서서 노려보는 것도 같아

친구들 발자국 소리가
자분자분 사라져 가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유리 창가에 매달려
내려다보고 또 내려다봅니다



부산도 가보고, 경주도 가보고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가보았건만
역사책 속에서만 갈 수 있는 땅
위인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땅

그 땅의 모습이 너무도 궁금해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도 보고파
햇살 아래 반짝이는 우리나라 지도를
자꾸만 자꾸만 내려다봅니다

고주몽이 말을 타고 활을 쏘던 곳
정몽주의 충성심을 시조에 담은 곳
금강산도 백두산도 품 안에 안고
오천 년 역사를 함께 살아 온 땅

언젠가는 나의 두 발로 가보고 싶어서
언젠가는 나의 자유를 나눠 주고 싶어서
햇살이 쏟아져 눈부시게 빛나는
우리나라 지도를 자꾸만 내려다봅니다.



최우수상

기도


동강중3·김남희

합장.

- 내 님이 돌아오게 해 주소서.

북녘을 바라보는
합장한 여인의 손에는
애달픈 기다림이
오롯이 피었고
그러한 기다림에
반드레히 닳아온
서글픈 염주는
알알이 그리워라.

매끄러운 염주를
살며시 쥐어 주고
곧 돌아오겠노라 약속했던
슬픈 내 님이여.
북녘으로 떠나시던
그대 모습 아련하고
서느런 바람만
꽃잎 안고 오누나.



여인의 이마에는
세월이 새겨지고
산천은 다섯 번이
서글피 변했는데
그리운 님께서는
어이 아니 오시나.

서글피 낡아온
염주알 구르고
여인의 작다란 손은
또다시
합장.
- 내 님 보내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이 내 몸
북녘 하늘 별이 되게 하소서.



최우수상


금강산 가는 길

천안월봉고1·권 별 샘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
영화 속에 등장하던 북한군 옷을 입고
로봇 같은 팔과 다리, 한결같이 소리 맞춰
냉정한 얼굴 삼엄한 눈빛으로
일어날 일 아무 것 없는
들판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고성에서 통일 전망대 지나
남측 북측 출입국사무소
짜늘한 검색 통과하기 더 힘든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20분이면 훌러덩 넘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지만
돌고 도느라 가장 멀어진
최초의 북한 땅,
가슴 벅찬 온정리 마을



삼삼오오 함께 모여 모내기에 열중하는
무채색 옷 입은 우리 동포들이 있었다.

그 흔한 휴대폰도
최첨단 카메라도 허락되지 않는 땅
첩첩산중 감시 속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보안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외금강 삼일포 연초록 호숫가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장소엔
애절한 손길, 통곡의 목소리
연화대 흰 바위에 아로 새겨져
인고의 세월 참아낸 그리움을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통일의 염원으로 뿔어 올리고 있었다.



우수상

우리나라 지도


부석초5·오용탁

가파른 산꼭대기에
씩씩하게 짐 하나 짊고 '백두산'
따스한 남쪽 하늘 이고 앓은 제주도에
고운 짐 하나 짊고 '한라산'

정성을 다해서
누가 봐도 멋지게 그린
우리나라 지도

장난꾸러기 내 짝꿍
저도 보겠다고 잡아채다
쭈우욱...
찢어 놓았다.

휴전선에
두 동강 난 우리나라처럼
두 조각으로 찢어져버린
내 멋진 지도



내 눈은
울먹울먹
짜꿍 입은
삐죽삐죽

눈치 보던 내 짜꿍
슬그머니 테이프 가져와
조심스레 붙여준다.

테이프의 질긴 힘으로
다시 하나 된
우리나라 지도

이어진 산과 강들이
넘실넘실 물결친다.



우수상


정오의 금물결

공주여중3·이빛나

“째깍째깍”
동그란 세상 속 씬 없이 도는
고요 속의 외침…
아슬아슬
닿을 듯 닿을 듯
슬픈 손끝만 아른거린다.

애뜻하게 스쳐 지나는
긴 바늘, 짧은 바늘
서러운 옷자락
그 목은 옷자락 타고 흐르던
반세기 녹슨 눈물
자리마다 떨어져
시퍼런 바다를 이루었다.

아스라이 스쳐 지나는
저 먼 바늘 끝에
나누어진 우리들의
서러운 이야기가
서리서리 굵이친다.



한없이 까칠한 서로의 얼굴을 부비며
달을 듯 멀어져 간
수많은 이별의 자락들 위로
만남을 향한 염원에
가슴은 새하얀 재가 되었다.

온 누리에 퍼지는 햇살의 절정
희망찬 정오의 금 물결이는 날
온 산하에 굽이굽이
온 겨레에 서리서리
만남의 환호성이
빗살처럼 기쁘게 물결친다.



우수상

통일의 노래

태안여고3·손성경

화음이 맞지 않아도 좋아
한 자리에 모여
두 손 굳게 잡고
아리랑을 부르며
따뜻한 눈길로 새봄을 노래하면 돼

노래하다 흥이 나면
어깨를 들썩이며
잡은 손 다시 맞잡고
절망으로 누워있던 분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서로 엇갈린 생각 하나로 맞춰
하나된 목소리로 부르면 돼

분단의 아픔이 저러올수록
통일의 노래 소리는
더 커지는 법
이제 물기어린 눈을 닦고
무거운 어깨 서로 토닥여
하나 된 조국을 노래하면 돼

화음이 맞지 않아도 좋아
한 자리에 모여
두 손 굳게 잡고
찬란한 조국을 노래하면 돼





장려상

그날이 오면

용동초6 · 김채림

그날이 오면

동무동무 모여라.

아바이 놀이 즐겨보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삼천리가 울리도록 동구랑 땡땡 동구랑

동무동무 모여라.

들로 산으로 꽃구경 가자

애기 똥 풀 금강초롱 진달래꽃 머리에 꽂고

버들피리 장단 맞춰 동구랑 땡땡 동구랑

동무동무 모여라.

허리띠 푼 호랑이 우리 함께 그려보자.

휴전선 쓱쓱삭삭 경의선 길게 이어

하나 되는 우리나라 동구랑 땡땡 동구랑

동무동무 모여라.

칙칙폭폭 기차타고 수학여행 떠나보자.

열차 곱밥 과일단물 얼음 보숭이 나눠 먹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구랑 땡땡 동구랑

동무동무 모여라
붉은 악마 태극물결 하나 되어 응원하자
오 필승 코리아 대~한 민 국
꼭지점 댄스 신나게 동구랑 땡땡 동구랑

꿈에도 그리는
그날이 오면.





장려상

등나무와 칩나무


은양용화중3·최민지

우리 할머니 댁
작은 쪽문 사이로
작은 새소리 들리면
아침은 찾아와
조심스레 똑똑 두드립니다.

그 소리에
살며시 연 문틈사이로
고개를 내민 등나무와 칩 나무

차가운 새벽공기에
체온을 나누듯 열기설기 영킨
굶고 가는 줄기 사이로
흘날리는 보랏빛 비단

등꽃이 참 고바야.
활짝 문 여는 젖은 눈 속
저 건너편 시골마을에 두고 온 봄이
50년 세월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저것들도, 저것들도,
엷힌 채 삶을 여며가는다….

할머니의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 뒤로
쌓아둔 세월 자락이
한 가득 눈물을 닦아냅니다.

반세기 전,
만아들과 남동생 잃은
한 여인네 서글픈 한숨소리에서
시작된 끝없는 이야기

하나 둘 꼬인 줄기
하늘을 뒤덮어 버리려는 듯
오른쪽으로 올라가려는 등나무
왼쪽으로 올라가려는 칩 나무

총과 칼이 부딪히고,
병든 몸 병든 마음 부딪히고
찢어지고 해진 형제의 눈물

결국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것을,
결국 한 길로 갈 것임을...

색이 갈아
꽃도 나뉘 피우는
등나무와 칙 나무
보랏빛 선연한
꽃향기에 취해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장려상

바람처럼

강경상업정보고2 • 목혜윤

황톳길 소 떼가 흙먼지를 일으켰다.
어둑신한 방안에선 종일 TV 불빛만 푸르게 빛났다.
사람이 못가는 길을 너희들은 가는구나!
할아버지는 마른침을 삼키셨다.
차마 내놓지 못하는 한 마디는
당신 속에만 담아두셨다.

철모를 쓴 근로자들이 개성을 향해 출발할 때
그때도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뉴스를 보셨다.
아침 뉴스도, 저녁 뉴스도, 밤 뉴스도, 심야 뉴스도
보고 또 보셨다.
나처럼 늙은이는 없구나!
마음은 펄펄 날겠는데,
동생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한숨에
개성 아니라 평양에라도 한달음에
내달릴 수 있을 텐데
차마 한 마디도 말로는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셨다.

꿀꺽꿀꺽 삼켰던

그 많은 말들이 가슴에 응어리 되어
결국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암 덩어리를 안고.
토하지 못한 말들은 살아서도 죽은 암이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셔서야 자유로워지셨다.

훨훨 바람이 되어

남북을 날아다니며 자유로워지셨다.
남쪽의 땅에 간히길 마다하시며
바람 속에 섞이셨다.

할아버지 가신 북녘 산하

나는 그곳에 내 집을 지으리라.
어찌다 구경삼아 가는 곳이 아닌
그리운 금강산도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앞뜰에 봉숭아도 진달래도
내 보기 좋은 모양대로 심어 키우고
텃밭에 북녘의 씨앗으로 상추 쪽갓 심어먹는
내 식구 오순도순 살아갈 집을 짓고 싶다.
바람처럼 할아버지 다녀가실 집.

사람이 못 가던 시절 보낸 에미애비소에게서 난
송아지가 자라 늙어 버린 그곳에
누구라도 오고갈 집을 지으리라.



12 전라북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친구야, 우리가 꼭 이루자 _261
- 봄을 부르다 _263
- 범(虎)의 전설 _266
- 소원 비행기 _268
- 새아침을 기다리며 _270
- 연리지(連理枝)를 꿈꾸며... _272
- 퍼즐처럼 _274
- 멀지 않은 그날을 그리며 _275
- 그리운 조국 강산 _277



최우수상

친구야, 우리가 꼭 이루자

군산나운초6·박예리

새는
넓고 푸른 하늘을 나는 새는
울타리가 없어 좋겠다.
오늘 내가 본 새가 혹시,
북쪽에서 온 새는 아닐까.

오늘 내가 본 새가 혹시,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새는 아닐까?
새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듣고 묻고 싶다.
북쪽 친구들 이야기를,

바람은,
정한 곳 없이 휘돌아 스쳐가는 바람은
자유로워 좋겠다.

지금 내 불을 어루만지는 바람은
북쪽 친구의 불을 부비고 온 바람은 아닐까?
지금 내 몸에 살랑이던 바람은

어느 때쯤 북쪽 친구에게도
짓궂게 장난을 치겠지

친구야, 우리는 어른들처럼
그리움만 키우지 말자.





최우수상

봄을 부른다

원광여중3·최 훈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깊고 깊은 이 겨울 안에서
누가 노래 부르나

얼어붙은 눈송이 내려앉은 이 대지는
온기서린 발자국 하나 없고
파르르 날아가는 저 새는
봄을 보았는가

봄이 오는 길목을 가로막은 철의 상처는
양상한 가지 사이로
깊은 한숨을 내뿜고

동에서 서로 무참하게
그어진 상처아래
대지의 마음은 봄을 그린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봄은 언제 오려나

한걸음 한걸음
파아란 풀빛으로 젖어들어 간
발자국을 벗 삼아
봄은 다가오려나

흰빛 무심한 눈들이
따스한 한줄기 눈물 되어
이 대지 위를 흐를 때
봄은 다가오려나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작은 새야
어서어서 봄을 깨워
이제 그만 이 상처를 다독여주렴



가슴 깊은 곳 응어리진
이 눈물을 닦아내어 주렴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봄아, 푸른 마음아
우리의 발자국 벗 삼아
어서 다가오려므나
이 땅의 겨울이 끝나고
민족의 그날이 다가오도록

나 이렇게
아리랑 스리랑 노래 부르며
얼어붙은 대지를
파아란 풀빛으로 채워갈 테니
봄아
이 대지에 파아란 싹을 틔워주겠니?



최우수상


범(虎)의 전설

전주생명과학고1 • 박희주

대륙의 바람과 먼 바다의 태풍이 아름다운 반도를
휘몰아칠 때
선량한 사람들은 서늘하게 식은
가슴을 내려다보며
대지를 부둥켜 안으며 통곡했으리

결국 살길을 궁구하던 백의의 마음이
설움으로 일어서던
피붙이의 함성이 엇갈리고
그때

다른 이가 전하는 끔찍한 풍문에
모르는 이가 만든 총칼을 겨누며
그렇게
형제자매가 피바람이 부는 언덕을
만들고야 말았다는데



그 후 그 언덕 너머 깊은 산에는
골골이 사시사철
범이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진다네.

한 때의 우둔함을 스스로 탓한 것인지.
잘리운 허리를 신음하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서네

아직도 바람속이네
처량히 울부짖는 범의 아픔이 먼 바다를 내달아
바람을 잠재워 아득한 아침의 나라를 소망하네
굴욕의 역사를 태워 한판 시나위로 풀어내
그대와 나 한 핏줄이기에
설움의 혼일랑 눈물로 씻어내 가슴으로
하나 되세나
무쌍한 범의 포효를 뱉으며.



우수상

소원 비행기

동상초5 • 송희주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 하나씩
마음속에 키우고 살지요.

아빠의 소원은
풍년 농사의
흥겨운 어깨춤이고

엄마의 소원은
우리 형제가
밝고 곱게 자라는 거래요.

우리들 소원은
공부 잘 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 할아버지
슬픈 소망 하나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요.

아직도 밟지 못한
고향땅에
지금쯤 진달래 필거라며
말씀하시는 소원은
우리나라 통일이래요.

그 소원 곱게 접어
훤
훤
훤
날려 보내며
먼 하늘 바라보고 있어요.



우수상

새아침을 기다리며

산서중3·윤종순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
푸르른 강물 위에 드리우고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조차 깊은 침묵에 삼켜져
이 땅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다.

하나의 땅덩어리가 둘로 나뉘는 그곳의 밤은
깊어가기만 하는데도
우리가 빼앗긴 원혼의 바람으로라도
새아침을 맞이할 잠은 오지 않았었다.

밤마다 숨죽여 울었을 인고의 세월에도
하나 되는 소망은 불기둥을 이루고
동해 바다로 해는 매일 떠올랐건만
새아침은 오지 않았다.

마음만은 벌써
우리를 기다리는 북녘으로 날아갔건만
반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은
우리들 가슴에
칠혹 같은 어둠을 걷어낼 시간을 기다렸다.

우리는 그날 이후
술한 나날의 간절함으로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라는 다짐으로
잃어버린 아침별을 되찾을 힘이 생겼다.

하나 되는 노력과 염원을 밑거름으로
우리는 아직 까마득한 아침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맞아야 할 것이다.





우수상

연리지(連理枝)를 꿈꾸어...

함열고3·김강산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서로의 마음마저 듣지 않으려는 듯
뒤돌아선 우리

오랜 외면 때문인가
변질된 언어지만
우리 영혼은 알아들으리라

공허한 메아리로
밤마다 울리는 붉은 깃발의 노래
쓰라린 분단의 아픔이여

하나의 뿌리
두 개의 줄기
새끼줄 꼬고 꼬아 하나로 이어지니



백두대간 굳센 줄기
용맹한 호랑이어
다시 힘차게 기지개를 켜라
더욱 우렁차게
청년의 외침을 내뿜어라

찢어진 민족의 얼
연리지(連理枝)로 이어질 소망으로
연 만들어 하늘 높이 날리니

너, 반쪽짜리 국기여
멀리 날아올라 북의 국기와 합쳐

태극의 둥근 원이 끝없이 돌고 도니
한민족 샘솟는 기상
새 생명을 잉태하리라
우주를 품고 하늘로 오르리라



장려상

퍼즐처럼

오수초6·이미라

조심스레 꼼꼼하게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
같이 모여 옹기종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천천히 조심스레
깨진 조각들을
맞추어 보고 싶어요.

다시는
깨진 조각과
마음의 고통이 없게요



멀지 않은 그날을 그리며

입암중2·최유진

멀리 보이는 저 하늘아래 두고 온
고향집 마당에 핀 철쭉꽃의 빠알간 빛도,
고향집 문을 두드리던 바람 소리도,
흐르는 세월 탓에 실향민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건만,

초등학교 아이들 짝꿍하고 놀이하듯
쉽게 그었던 그 선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구나.

가슴에 상처 안은 술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으로도
본래 둘이 아니라 하나이었음을 배워 알게 된,
아직은 어린 우리들의 소망으로도
지우지 못한 그 선이
실향민들의 눈물로 고여 있다.

하지만 희미해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놓지 않고 있는 실향민들의 바람이 있는 한,
북쪽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그 얼룩진 선은 지워지리라.
비 갠 후 맑은 하늘처럼.

고무줄놀이 하는 여자애들
고무줄 밟고 이편저편으로 폴짝폴짝 건너다니듯
그렇게 선 밟고 가볍게 넘나들 날
멀지 않으리.





장려상

그리운 조국 강산


부안여상고2·김 다솜

굶주린 동포들이 조국을 지켰던
한 많은 민족의 대동맥이
고통으로 숨죽여왔다.

혹독한 세월을
안으로만 안으로만
뒤돌아보기엔
너무나 미어지는 상처들

비무장지대 잡초 속에서
비바람 찬이슬 맞으며 서있는
이름도 없이 떠도는 장정들의 넋
이 반 조각 조국강산을 지켜왔다.

새장에 갇힌 지난날
지친 날개를 퍼덕이며
우리의 새는 아픔도 잊었다.



먹물처럼 스며드는 세월의 아픔
이제는 구름 속의 비가 되소서.
언제 가려나
그리운 고향 길
지저귀는 산새소리
골골이 가득하다.

피 마르고 살 에는 듯한
너와 나의 만남을 위하여
이 통곡의 벽에서는
피와 살을 섞는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 흐른다.

실핏줄에서 동맥까지
쓰라린 부끄러움이
갈피마다 끼어있다.
지척을 만 리로 달리는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
언제 가보나 내 고향

녹슨 철모 주인
우리의 육신이 죽어
통일의 나무에 밑거름이 되리
영광의 날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13

전라남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우리가 나중에 _283
- 통일로 가는 기차 _286
- 헤어짐의 길목에서 _289
- 할머니의 눈물 _291
- 민족의 염원 _292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_294
- 눈물 한 방울 _296
- 어찌하여 _298
- 선 굵기는 쉽다,
그러나 지우기는 쉽지 않다 _301



최우수상


우리가 나중에

목포중앙초6·김명주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걸어서 걸어서
북녘까지 올라가야지.

금강산도 가고,
만월대도 가고
가지 못한 우리땅
마음껏 내 눈에 담아야지.
가면서 만나는
사람 사람
웃으며 인사하며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말해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긴 끈을 만들어야지.

가슴으로, 사랑으로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마음의 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녘 친구들과
놀이공원도 가고
유람선도 타야지.

놀면서 웃으면서
너를 나를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지.

정말로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저 아무 말 없이
다른 아무 감정도 없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있어야지.





최우수상

통일로 가는 기차


여수중고중2·박진갑

반세기 어두운 터널을 뚫고
기차가 달린다
도라산 역을 출발해
북으로 가는 기차
하늘도 강물도 따라나선다

봇물처럼 가뒀 둔
칠천만의 한이
금수강산 곳곳마다
햇빛으로 풀린다

그토록 오랜 세월
바라만 보던 하늘
우리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자
허울을 덮고 감싸주는 사랑으로

통일의 다리를 놓아 보라
그 다리를 달려오는



얼굴 얼굴을 향해
큰 가슴을 열자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가는
철길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달려가고
북에서 남으로 달려오면

아, 녹슨 철조망 위로
흐린 6월의 하늘이 개인다
민족의 아픔이 씻어진다
우리의 희망이 떠오른다

50년 긴 어둠을 털고
눈부신 통일의 아침을 향해
달리는 기차
너와 나
우리 모두
기관사가 되자

철로를 따라
온 겨레가 달린다
산도 들도 함께 달린다





최우수상

헤어짐의 길목에서

별교고2·최진아

어무니, 울 엄니
흰 머리 덩수룩한 칠십 먹은 할배도
붉은 치마폭에 쌓여
울음 흘리는 애기가 된다.

세월의 곤 때 고스란히 묻은
갈라지고 부르튼 손 움켜잡으며
부둥킨다. 적신다. 토해낸다.

기쁨의 만남도 눈물이고
헤어짐도 눈물이나
헤어짐의 눈물은 대못이 되어
마음속에 쿵쿵 들이 박히고

미어지는 가슴속 곰살꺾은 얼굴 묻고
방울방울 아롱진 미소를 머금으며
엄니, 잘 사시오.
매지구름 같은 인사 띄우며

몇 걸음 걸어가면
고개가, 자꾸, 뒤로만
돌아가고

그때마다
흘날리듯 날갯짓하는
부전나비 한 쌍이
팔랑,
더듬이를 끄벅거린다.





우수상

할머니의 눈물

장동초6·선혜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본다
북에 두고 온 아들 생각에

할머니의 긴 한숨에
흘러가버린 세월을 본다
통일을 기다리다 가버린 세월에

할머니의 망가진 손에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본다
아들의 어린시절 얼굴을

할머니의 보따리에
아들에게 줄 선물을 본다
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알콩달콩 살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은 언제 올까.



우수상


민족의 영원

강진칠량중1·김유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 복잡한 사이.

허나
이대로 돌아서기엔
이대로 남남되기엔
너무 간절한 사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
분단된 국토에
분단된 민족으로
그저
고통스럽고
안타깝기만 한 사이.



그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작은 종이 비행기에
담아
저 멀리 날려본다.

바람에 실려
저 멀리 이북까지
실려 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
전할 수 있도록
절실한 소망
닿을 수 있도록….



우수상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르고 닳도록


여천고2·김진욱

멀어져버린 두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있고
오십 년 세월 새 없이 흘러내려
깊게 패인 상처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온통 상처 입은 몸뚱이에
쓰디쓴 그 물 닿으니 참아온
고통의 신음이
굳게 다문 이빨 사이로
새어 나온다.

칠천오백만의 신음소리에 노한
한라의 할미와 백두의 할아버가
무궁화삼천리에
시퍼런 고향소리 찌렁찌렁 울리니

마침내 칠석날 견우와 직녀
녹슨 쇠줄을 힘겹게 끊었다.



푸른 하늘 아래 마주앉은
백의민족 부둥켜안으며
가슴에서 가슴으로
깊숙이 감춰둔 그리움 이야기하며
부활의 눈물을 흘린다.

이제 따뜻한 봄바람 완연하여
눅눅한 슬픔들 마르는데

설령 다시 가물고 바람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 그날에도
우리의 굳게 잡은 두 손은
놓지 않으리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장려상

눈물 한 방울

담양동초6·김 한 울

선생님과 함께 간 판문점에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고향생각 가족생각
너무나도 그리워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두 손 꼬옥 잡은 채
하염없이 흐르는
할머니의 마알간 눈물방울에는
그리운 북녘 고향이 한 손 가득
보고 싶은 가족들도 한 손 가득
담겨 있어요.

할머니의 투명한 눈물방울에는
시리도록 아픈 60년의 한이
전쟁의 쓰라린 기억 한 뭉치가
함께 담겨 있어요.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소중한데
그 눈물방울 속에
저기 저 철조망을 녹일 수 있는
마법이 들어있다면...





장려상


어찌하여

장성여중3·신낙원

형제여,
저 하늘을 날아
이 땅을 떠난 철새도
봄이면 다시 돌아올 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곁을 떠나
이 땅을 돌로 가른 내 혈육은
봄이 와도 내 그리운 노랗
듣지 못하는 것인가.

형제여
이 대지에 뿌리박아
이미 꽃과 잎을 버린 나무도
봄이면 다시 꽃 피워야 함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와와 오해를
이 대지의 뿌리를 자른 내 혈육은
나를 버리고
나와와 추억마저도 버렸단 말인가.

형제여,
내 마음
이미 지난 반세기를
눈물도 얼룩져 후회함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마음과 같을
봄을 맞는 내 혈육은
다시 되돌아 올 길도
다시 꽃필 시기도 잊어 버렸단 말인가

어찌하여
망설이는 내 마음은

이 벽에 가로 막혀
봄새의 노래마저 이 벽 너머로
건너지 못한단 말인가.






선 긋기는 쉽다. 그러나 지우기는 쉽지 않다

목포제일여고2 • 이민지

친구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제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선을 그어 티끌하나 넘어가면
 죽일 듯 노력합니다
 심하면 툭 치기도 합니다
 울진 않아요, 다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점점 마음을 단습니다

사실 우린 둘도 없는 단짝이었어요
 책상선이 웬 말이에요 자유로이 오가며
 스스럼없이 웃을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슬픔에 찬 눈망울로
 때론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망울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볼 수 있었는데
 그저 볼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겐 경계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건 없었어요



주위 친구들도 바라보길 많이 불편해 합니다
우리만 이렇거든요
책상에 하얀 선 모자라
필통으로 담을 쌓아놓은 모습은요
어떤 친구는 나에게로 파고 들어와 나와 친구를
이간질하기도 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죠
돌연 화해하고 단짝이 되어 놀라운 힘을
발휘할까 항상 경계하고 걱정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해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
본연의 우리를 소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깊어진 감정의 골에 다가가려는 발걸음
재차 빠지고 걸려 넘어져도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이루는 세포는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우리들의 진실인지,

현실인지, 미래인지 알고 있어요
나 이제 마음을 열래요
어려운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자주 이야기 하는 것,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엔겐 경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없어요



14

경상북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유월의 하늘 _307
- 겨울 바다 _310
- 조개껍데기 _312
- 희망의 시계 _314
- 떨어진 복으로 _317
- 내 소원은 _319
-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 _321
- 온 겨레의 소원 _323
- 마주보며 웃는 날 _326



최우수상

유월의 하늘

화산초6·최 묘서


맑고 푸른 유월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하이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동해의 물결 따라 펼쳐이는 금강산 유람선
그 아래 55년의 기적을 울리는 꿈의 통일열차
모두가 꿈이 아닌 한 민족,
한 겨레이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걸어온 세월
친구야 부르면 금방 달려올 것만 같은 그곳
눈감으면
어머니 품속같이 그리웠던 그곳.

백두산 천지에서서 한라까지
젓 먹던 힘 다해 외쳐봅니다.

아!
지금은
둘이 되어 버린 유월의 하늘
마음만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가까이 서서 손잡고 싶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손에 손에 맞잡은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한 민족 한 겨레 한 동포인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똑같은 단군의 자손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걸.

아!
유월의 하늘은 이제 슬프지 않아요
더욱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화지에 담은 내 한조각의 꿈
작은 새 날개 빌려
멀리 날려봅니다.

통일의 날개 평화의 날개 실어
저 북녘의 하늘 위를 적시는
단비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풍선만큼 부푼 내 마음
두둥실
유월의 하늘 위를
곱게 수놓고 싶습니다.





최우수상

겨울 바다


의성여중3·김정미

상처를 도려내던 아픔은
잊으려해도 잊혀지지 않고
뺏속 깊이 스며드는 외로움은
나를 더욱 눈물짓게 했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에
그날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은
목마른 갈매기의 노래가 되고

총부리를 겨눈
우리 민족의 가슴엔
부서지는 파도 파편이
시린 상처가 되어 박혔습니다.

시린 파도가 밀어내려 애써도
곳곳이 견뎌온
오십 넘은 저 담이
따스한 한줄기 사랑으로
낮아지는 날이면



서로 보듬는 마음이 있던
시린 겨울바다 건너
그리운 그곳으로 갈수 있겠죠.

차갑지만 약한 것보다
따스하며 강한 사랑으로
우린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바람이 묻어남을 느끼며
흐려오는 희망이 아닌
또렷해지는 희망을 안고 싶어

오늘도
조금 더 뚜렷해진 그의 흔적을
밟아 나아갑니다.



최우수상

조개껍데기

점촌고2 · 이준수

석회냄새 풍기는 차디찬 바다 속에
주인 잃은 조개껍데기가 구슬프다.

물길에 휩쓸려 이리저리 다니더니
두 쪽의 맞물린 껍데기가
바위에 부딪혀 깨어졌다.

비웃는 듯한 모래가 상처를 찌르고
밀어닥치는 풍화에 온몸은 녹아들어 혈어만 간다.

차마 떨구지 못한 눈물방울마저
무심한 바다가 삼켜버리고
들어올리려는 고개는
에워싼 흙 속에 거꾸로 처박히었다.
이리저리 파인 상처 속에
주름살이 박히고
소금기 저린 두 다리는 점점 더 저려온다.

두 껍데기가 이루어내는 조개 속에서
분홍빛 찬란한 진주는 피어나건만
갈라져 버린 좌절과 주인 잃은 설움 속에
닥쳐오는 염산 같은 과도만을 막아낸다.

생명 없이 죽어버린 껍데기가
바다에 제 몸을 맡긴 채
힘없이 바닥을 응시한다.

태양마저 떠오르지 않는 추운 이 바다 속에
입 속에 톱을 숨긴 물고기들이
광채 나는 누런 두 눈을 둥그러니 뜨고
조갯살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다.





우수상

희망의 시계


호서남초6 • 유성 목

삼팔선 사이에
자리 지키고 있는
희망의 시계

희망의 시계는
똑딱똑딱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대요.

우리 모두
기쁨, 사랑
만들 때마다

1분씩 1분씩
째각째각
시계바늘이
움직인대요.



남과 북이
한발 한발
서로에게
다가갈 때마다

이산가족의
희망이 점점
커질 때마다

아픔의 과거
지우개로
싸아악
지운 듯

시계바늘이
1분씩 1분씩
움직인대요.

시계가
12시를 향하면
남, 북은 아마
통일의 산
정상에 서 있을 거예요.





우수상

멀어진 북으로


예천여중2·정수정

꿈에도 그 모습이 훤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눈을 감으면 그때 모습이
새싹처럼 돌아나
금세 눈물이 되어 흐른다.

눈에 그 모습이 훤히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하늘을 보면 아직
당신이 살아 있다고 믿어
눈을 감기가 두려워

56년의 세월
그동안 눈처럼 쌓였던 설움이
눈물과 함께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고

56년의 세월
눈처럼 녹아 얼음으로 얼어



마음이 무겁고 아파서
눈을 감으려는데

56년의 세월
멀어진 북에서 아직도 살아갈
당신이 걱정되어 차마
혼자 눈을 감지 못한다.

설움의 세월을 딛고
눈물의 날개를 달아
당신이 살고 있을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곳으로

차가운 철조망을 건너
거대한 지뢰밭을 지나
할머니는 날아간다.
멀어진 북으로….



우수상

내 소원은


경산고1·장지훈

죽어서라도 그대를 볼 수 있다면
세차게 바람이 불어올 때
구름 타고 날아가
그대 곁에서 울고 싶다.

저 차가운 언덕 위에
시들어진 나무를 보아라.
붉은 핏줄은 뿌리에 박혔으나
잊혀져서 시든 나무를 보아라.

내 눈물 바람에 실어 날려도
땅을 가르고 피어난 가시 꽃에
갈기갈기 찢겨져 분통한
검붉은 피를 보아라.

구름이 하늘을 갈라도
바람에 날려 부서지는데
우리의 하늘에 구름은
여전히 어둡게 깔려 있다.



시들어진 내 나무를
파도 같은 바람이 할퀴어도
끝내 우리는 사랑스런
그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리.

죽어서라도 그대를 만난다면
거세게 파도가 칠 때
초승달 타고 건너가
그대 곁에서 잠들고 싶다.

그것이 오랫동안
내 눈물이 키워 온
그대를 위한 소원이다.



장려상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

대덕초6·류현주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 쿵쿵 따 끝말잇기 하자
설악산 쿵쿵 따
산-골 쿵쿵 따
골키퍼 쿵쿵 따
잠깐 골키퍼가 뭐이네 문지기지
문지기가 뭐냐 골키퍼지 하하하
북한 친구 백두 때문에
매일 매일 웃어요.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도 쿵쿵 따 끝말잇기 하자
기러기 쿵쿵 따
기차표 쿵쿵 따
표준어 쿵쿵 따
잠깐 표준어가 뭐이네 문화어지
문화어가 뭐야 표준어지 하하하

남한 친구 한라 때문에
매일 매일 웃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남한 말, 북한 말
서로 서로 맞춰가며
끝말잇기 하느라
통일 학교의 쉬는 시간
너무 너무 짧지요.





장려상

온 겨레의 소원


후포중1·김 숙 영

저 멀리서 들리는
북녘 땅 소식 하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도
눈물 젖은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봐도
저 너머 침묵한 땅

이제는 혼자서
그리워하는 일도
설움을 삼키는 것도
습관이 돼버렸지요.

그때 그 시절
기약 없는 약속
한에 담아온 할머니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56년 세월
산보다 높겠네.
머리카락으로
세워버린 세월
바다보다 깊겠네.

북녘에 살아 계실 부모 생각
세월에 잊혀져 가는
아련한 추억으로
보내는 나날들이
할머니는 슬프겠지.

이젠 고통의 짐
덜어 갈 수 있는
온 겨레의 소원
희망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늦었지만
꿈길로만 오가던
56년의 세월
흘린 눈물들은
강 길도 열겠습니다.

막혀온 세월의 강
이제는
온 겨레의 소원이 통일의 물꼬를
열어 갔으면….





장려상

아주보며 웃는 날

영천여고1 • 장득현

검붉은 올가미 찬 허리
쓰라린 아픔에
달리지 못하는 범은
오늘도 시리게 운다.

남으로 북으로 몰아치는
불신의 파도
닿아 부서진 땅덩이에
이별한 백두와 한라가
시리게 운다.

무 잘리듯 잘려
날로 멀어지는 마음
온몸에 꿈틀거리는 단군의 피가
더욱 시리게 운다.

검붉은 올가미를 걷어내고
몰아치는 파도를 이겨내는 날
비로소 그날이

겨레의 눈물을 닦는 날이다.
눈물 자욱 얼룩진
얼굴로
마주보며 웃는 날이다.



15

경상남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백두산 할아버지 한라산 할머니 _331
- 한민족의 눈물 _333
- 옥수수 밭 _335
- 얼마나 좋을까? _338
- 여러분은 아시나요? _339
- 탈북자 _342
- 날개 _345
- 한 민족, 한민족 _347
- 탈북자 _349



최우수상

백두산 할아버지 한라산 할머니

김해삼성초6·김 다슬

푸름푸름 아름답던 백두산 할아버지
반세기 전부터 시들시들
할아버지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오래전 헤어진
우리 한라산 할머니
그리워서..., 보고파서...
하시며 쓴 웃음을 지으신다.

하늘하늘 고왔던 한라산 할머니
반세기 전부터 빛을 잃고
할머니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오래전 헤어진
우리 백두산 할아버지
그리워서..., 보고파서...
하시며 쓴 웃음을 지으신다.

백두산 할아버지 한라산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병원 필요없다.”
“통일만 하여라.”





최우수상

한민족의 눈물

남산중2·차수연

엄마에게서
선물 받은
할아버지 애장품
평양 소주

고이 모셔두던
할아버지의 소주가
바닥을 보여 가던 그때

이산가족 상봉에
한반도가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한민족이
만나는 것도 뉴스거리가
된다는 사실에
눈물짓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소주잔에
한민족의 눈물을
가득 담아
마시셨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소주잔에는
이북 땅 한민족의
눈물이 가득입니다.





최우수상

옥수수밭

거제옥포고1·김지윤

어렵게 어렵게
두만강 넘고 온 이 땅


이 땅에 오니
좋은 것이 너무 많더라

우리들 차마 귀해서
못 먹던 쌀밥이 널렸고

우리들 차마 들어보지도 못한
기계들 가득하고

우리들 차마 아까워서
못 만들던 술도 가득해라

참으로 지상낙원이
다름없는 곳이다



거기다 우리들
반갑게 맞이해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 남녘땅 살기 좋아도

지금쯤 옥수수 밭에서
농사짓고 있으면서

근근이 끼니를 잇고 있을
내 가족들 생각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백옥 같은 쌀밥이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고

끝끝내 내 목을
메이게 하는구나





우수상

얼마나 좋을까?

웅남초5·장주원

백두산에는
식물들
동물들이
어울려 살고 있지

창원에서 온 까치
부산에서 온 비둘기
주왕산에서 날려 온 민들레

이렇게 잘 지내는
동물들
식물들처럼
남한사람과
북한사람들도
잘 어울려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동물과 식물이 따로 살지 않는
백두산처럼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수상


여러분은 아시나요?

대방중2·남 인혜

‘이산가족 상봉’ 이라는 문구로
TV를 보는 내내 눈시울을 붉히게 했던
서로를 만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산가족들을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부모님을 업고 행복해하는 사람
옛날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죽기 전에 만날 수 있게 되어 고맙다며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
하지만 행복해하는 모습 뒤엔
쓰라린 고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룬 많은 날들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가족을 찾지 못해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서도 곧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단 한번의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그들의 행복을 깨뜨리고,
휴전선이라는 흉측한 선을 그려 넣어
그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제는 이산가족이란 말이
없어져야 할 때,
남한·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야 할 때,
다시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지 않아도 될 때,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될 때가
여러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수상

탈북자


창신고2 · 홍 세 기

떠나본 자는 안다.
결코 떠나올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속 아린 고통을.

떠나본 자만이 안다.
안태 묻은 조국을 뒤로하고
맨발로 달려 나올 때의
그 절박한 삶의 의욕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마셨던
익숙한 공기며 물을
더 이상 흡입할 수 없다는
몸의 저항과
오랜 입맛의 친숙함에서 벗어나
낮선 곳으로의 침입이 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부모와 친구와 동료와 지인들,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별을 앞두고



차마 떠난다는 작별조차 하지 못한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국경을 넘는 자의 절절한 설움을.

얼마나 오랜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까
얼마나 긴 기다림의 날들이 흘렀을까
그리하여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새 희망과
새 언약의 길을 만들어
불가능한 견고한 암벽을 넘었을까

떠나본 자는 안다.
폐쇄된 세상의 지독한 억압을.
견고하게 쌓은 울타리의 엄숙함을.
확일을 강요하는 독재의 모순을.
인권과 자유와 존재가 유린당하는
그 사상의 폭력을.



이제 떠나는 자의 이름을 떼고 싶다.
떠나본 자의 외로움을 치우고 싶다.
남은 자들의 가슴에 맺힌 매듭을
술술 풀어내어
그 끝에 자유와 민주의 닳을
매달고 싶다.

가슴이 넓은 자가 먼저
아낌없이 가슴을 열어야 한다.
곳간에 가진 것 많은 자가 먼저
조건 없이 빗장을 풀어야 한다.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는 후덕함이
명분과 실리를 뛰어넘는 인류애가
떠나온 자들의 가슴에 매달린 맺돌을
천천히 내려줄 것이다.
떠나온 자들의 양심에 묶인 배신감을
천천히 치워줄 것이다.



장려상

날개

상일초6·조은혜


나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

그 산은
바로 백·두·산

내가 백두산에
가고 싶다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보고
갈 수 없다고 한다.

왜
왜
왜 그럴까?

높이가 높은 것도 아니다
거리가 천리만리 먼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나는 말한다. 내 자신에게
“희망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자고.”

때론 갈 수 있을까?
걱정도 하지만
“그럴 순 없다.”고
내가 말한다

“푸르디 푸른 백두산이
널 기다린다고.”
내가 나에게 속삭인다

56년 동안
가느다란
휴전선 하나만을 보며
백두산과 무학산은
서로를 그리워 했을 텐데….



장려상

한 민족, 한민족

반송중3·장현수

손만 뺏으면 닿을듯한 거리인데,
겨우 철망 하나 차이일 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아파하며
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한 민족이 아닌
두 민족으로 나뉘져버린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고 있습니다.

비록 쇠붙이 때문에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민족의 얼이 끊어진 채로
보내어 버렸지만,

하지만 이제 그 얼을 이을 때입니다.
그 옛날 단군왕검의 얼과 기상을
삼천리 금수강산에
널리 널리 이을 때입니다.

이제는 답답해하는 호랑이의
허리에 감긴 띠를 풀어줄 때입니다.
숨조차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호랑이를 풀어줄 때입니다.

그리하여 호랑이가 자유로워지면,
온 땅에 단군의 얼과 기상이
살아 숨쉬게 된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한민족, 한 민족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려상

탈북자

김해중앙여고3·박 소영

남녘 하늘엔 새벽달 떠있고
무궁화할아버지네 대문에 걸린 장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고 있었다.

북녘이 고향이라는 할아버지네 마당엔
여기저기 흩어진 봄빛이 막 쏟아지고
통통하게 알이 밴 무궁화 나뭇가지 속에서
꽃과 잎들은 또글또글 눈알을 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무의 밑동 같은 눈으로
고향에 두고 온 흥역 같은 삶과
소의 둥근 눈을 한 볼이 튼 어린 새 걱정
내뱉는 숨들이 북쪽으로 몸을 던진다고 말했다.

하얀 고봉밥 한 그릇에도
할아버지 눈가엔 여율이 흐르고
세월을 켜켜이 인 얼굴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분홍빛 무궁화 꽃 희망들이
한반도의 끊어진 허리에도 피어날 때
고향땅을 밟고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무궁화 꽃을 심는다.



16

제주도*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통일 새 _353
- 배달의 나무 _356
- 겨눌 것 없는 하늘을 기다리며 _358
- 무궁화 이야기 _360
- 두 손 맞잡은 대한민국 _362
- 돌담 건너, 우리는 하나 _365
- 통일의 뽕틀 _367
- 넝쿨장미 _369
- 짝을 찾아 주세요 _372



최우수상

통일 새


고산초6·강 희 선

미술시간에
색종이 반으로 접어
가위로 싹둑
가위로 딱 반을
자르다보니 벌써
내 두 눈은 글썽글썽

색종이도 반으로
우리나라도 반으로

신탁통치 반대,
신탁통치 찬성,
다툼부터 시작해
전쟁까지 이르던
우리나라

전쟁 한 번,
다툼 한 번
딱, 한 번 했는데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지도가

지워지지 않는 선
한 가닥
남과 북을 잇고

반쪽 땅에서
반쪽 인생을 산 우리들

이제,
날개를 달자
반쪽이 아닌 하나의 꿈을 향해
희망을 나는
예쁜 새를 오려보자

빨강, 파랑, 노랑
색종이에 소원을 넣고
따뜻한 마음을 실어



사랑과 희망으로
덧칠을 하면

잘려진 색종이도
잘려진 우리나라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고
노력하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꿈

색종이 하나로 접으면
통일 새,
희망 심어
창공 위 날아오르면
통일 조국.



최우수상


매달의 나무

서귀포중3·강현수

해질녘
물새들 무심히 오가는
임진강 하구에서
굽이치며 흐르는
강을 보았다

길을 잃은 쇠붙이가
별건 녹으로 사위어가는 세월
불신과 상처는 비수가 되고
이산의 눈물은 강이 되고
한숨은 바람이 되어

친구 잃은 교각이
서러운 물살 이기며
허리가 시리도록
쓸쓸히 기다리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 마음 모아
뜨거운 가슴
굵은 땀으로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

지난 세월 아픈 가슴도
냉전과 불신의 쇠붙이도
오랜 회한의 한숨과 눈물도 거두어
아름드리 반도의 나무로 자라도록

서로의 아픔 보듬고
눈물까지 사랑해줄
자유의 강에 발을 적시어
배달의 나무로 다시 우뚝 서도록



최우수상

겨울 것 없는 하늘을 기다리며

신성여고3 · 이혜진

전우여, 안녕
나는 철모를 베고 여기에 누울란다.
누워서
겨울 것 없는 저 하늘을 기다리리라.

명령불복종이라 하지 마라.
적은 없고 사람만 있는데

누굴 죽이라는 말이나
적은 없고
나의 피붙이들이
사상의 사슬에 끌려서
가슴 가득 두손 가득 섯덩이에 짓눌렸는데
안아주며 손 한번 잡질 못하니
차라리 나 여기서 누울란다.

전우여
나는 여기에 누울란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어깨에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을 손꼽으며
독하디 독한 묵은 흙은 삼켜버리고
누워서 저 하늘을 기다리리라.

그리하여 전우여
우리의 붉은 눈물을 기억하며
겨눌 것 없는 저 하늘을 뿌리는 그 살을
당기고
형제들과 포근히 내 위에 누워다오.

전우여, 안녕





우수상

무궁화 이야기

제주서초6 • 문지현

저기저기 가는구나
쟁기질할 소도 가고
곡식 키울 비료도 가고
아프지 말라고 약도 가고
맛보라고 감귤도 가고
남녘 무궁화 한마음 되어
분단의 울타리를 넘어
희망 주러 가는구나

저기저기 오는구나
꿈에 그리던 가족도 오고
남남북녀 미녀 응원단도 오고
목숨 걸고 탈북자도 오고
북녘 무궁화 한마음 되어
분단의 울타리를 넘어
희망 안고 오는구나

여기여기 만났군
같은 얼굴 같은 말

반가이 웃어 주며
희망의 씨 통일 의 씨
철조망을 넘어
육천만 무궁화
하나 되어 만났구나





우수상

두 손 맞잡은 대한민국


함덕중1 · 신재희

에메랄드 빛 반짝이는 바닷물,
다 내가 흘린 눈물인가 보오,
휴전선 앞에서 놓아버린 그 손
다시 만나자 약속한 마음
다 어디로 가 버린 게요

에메랄드 빛 반짝이는 바닷물,
다 내가 흘린 희망인가 보오.
내일은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꼭 만날 수 있다는 마음
다 어디로 가 버린 게요.

에메랄드빛 반짝이는 바닷물,
다 내가 흘린 원망인가 보오.
하루 걸러 하루 부딪혔는 남과북
50년 동안 기다린 우리의 모습
다 어디로 가 버린 게요.

에메랄드빛 반짝이는 바닷물,
다 내가 흘린 슬픔인가 보오.



마음 속 깊이 박혀버린 못 하나
언제쯤 빼내어질까 소망하던 마음
다 어디로 가 버린 게요.

외발다리로 걸어온 대한민국
걸어온 세월 벌써 반세기이니.
웃고 울고 원망하고 그리워하던
나의 마음 잊혀지지 아니하오.

푸른빛 지닌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곁에 남겨진 슬픔이란 두 글자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프게만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너와 나 하나 되어 울어대던 그날
너와 나 하나 되어 찾아대던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나 보오.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아픔을 시작했나 보오.

바닷물이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이처럼 짠 지 그 누가 알겠소?
짜디 짠 나의 마음 이제는
백의의 태극기 휘날리며 외쳐보려 하오.

남과 북 두 손 맞잡아 하나 향해
달려가자고….





우수상

돌담 건너, 우리는 하나

제주여고2·부수영


인종은 황인종,
단군왕검 아래 한민족으로 태어난 우리.
언어는 한국어,
삼국시대를 거쳐서 지내온 우리.

소리 없이 갈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
한민족이라 외치면서 지내왔던 날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새들은 자유로이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새처럼 날아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새처럼 훨훨 날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옛 우리 모습으로...

민족은 하나 국가는 두 개.
민족은 하나 지도자는 두 분.



국기, 국화, 다 다르구나, 많이 변했구나.
정들었던 말들은 어디로 가고…
마음은 하나인데 몸은 둘.
평등과 자유가 교차하는 곳.

우리는 서로 만나질 못해
소원했었나 보다.
어둠보다 밝은 빛이 보고 싶다.
밝은 빛으로 하나가 되어…

친구야, 친구들아.
한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를 만들어…
신나게 놀자꾸나.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돌담 건너 우리 하나가 되자…
돌담 건너 우리 하나로 뭉쳐,
이 고을 저 고을 훨훨 날아서,
살겨운 만남을 가지자.



장려상

통일의 땀들

한동초6 • 허인선

으라차, 으차!

으라차, 으차!

발 구르고

도움 달고

힘차게 힘차게

땀들을 넘습니다.

통일의 땀들을 넘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눈물로 고인

천지를 넘고,

민족의 고통이 한이 되어 쌓인

백록담을 넘고,

이제,

민족의 슬픔으로 녹이 쓴

철조망까지 넘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막아버린

한반도 위의 선도 지워버립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6·25의 고통을 지우려고
이산가족의 슬픔을 지우려고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하나 되려고
통일의 땀물을 넘습니다.

땀물을 넘어,
멋지게 하나 된
나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려봅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장려상

넝쿨장미

신산중3·김현주


아침햇살이 내리쬐는
우리 집 담을 휘감고
자라난 넝쿨장미

넝쿨장미 꽃은
우리 민족이 화합하여 오순도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겨레의 모습

넝쿨장미의 붉은 빛은
순국하신 국군들의 외침
더더욱 당신들의 고귀한 죽음으로
가시밭에 몸 바쳐 싸운 전쟁터로

싹둑 잘려진 장미가지는
대통령대통령 매달려 진액을 흘리고

넝쿨장미의 무덤에 가려진 가시는
선혈들의 외로운 죽음으로 기억되리.



활짝 만개한 장미가지는
이내 갈색 락 모습으로
화려함의 짧은 샘물
마감한 채 떨어지고

떨어진 넝쿨장미는
가뭄에도 아랑곳 았고
은밀히 활짝 피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네.

비록 짧지만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넝쿨장미에게 박수를 보내리.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곁에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철조망으로
오랜 세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남·북 이산가족이란 단어만을
남겨놓고 쉽사리 아물지 았네.

오늘, 내일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 분단

하지만, 내일도
우리 겨레가 살아 숨쉬는 이유인
“녕쿨장미”를 볼 수 있는 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장려상

짝을 찾아 주세요

제주여상고3 • 이소희

짝을 찾아 주세요
1950년에 잃어버린 저의 짝을 찾아 주세요.


새벽에 일어난 일이지요
취도 새도 모르게 모두가 잠이 든 새벽,

요란한 대포소리와 같이
우리는 떨어져야 했죠.

서로 다른 생각이, 이념이, 사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죠.

벌써 티격태격 싸운 지 5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 후로 길다란 선을 긋고 서로 경계를 했지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짝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제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어
다가갈 수 없네요, 달려갈 수 없네요.

짹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짹과 함께 달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싶어요.

짹이 없으면 전 반쪽에 불과한 걸요.
기뻐도 웃음은 쓰기만 한 걸요.
슬플 땐 더욱 맵기만 한 걸요.

한 발짝만 더 가면 짹이 있는 곳인데
저 지나긴 선을 자르면 너와 나는
아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짝을 찾아 주세요.

너와 내가 아닌
하나가 될 수 있게
잃어버린 저의 짝을 찾아 주세요.



2006 제11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운문집

초판인쇄일 2006년 10월 4일

초판발행일 2006년 10월 9일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 901-7122

홈페이지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 · 인쇄 현프린트

전화 02) 2273-7142
